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 웁긴이 서문

이 역서는 Eamonn Butler, *Ludwig von Mises: A Primer* (London: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0)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미제스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에게는 미제스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는 데, 미제스를 깊이 연구한 독자들에게는 미제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이전에도 미제스에 관한 우리말 서적들이 제법 발간되었지만, 이 책만큼 짧은 지면에 효율적으로 미제스 전반을 잘 해설한 책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웁긴이는 대학에서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과 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웁긴이는 공공선택론에서는 고든 툴릭의 저서를, 그리고 오스트리아학과 이론에서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서를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인데, 그들의 이론들이 웁긴이의 관심을 자극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웁긴이는 우리나라 독자들을 위해 전에는 툴릭의 책을 많이 번역했지만, 이제는 툴릭에 큰 영향을 끼친 미제스의 책도 번역하기 시작하고 있다.

모든 정치 및 경제 현상을 일관된 시각에서 멋있게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미제스는 모든 경제 현상이, 심지어 화폐, 자본, 이자와 같은 것도, 상이한 가치와 선호를 가지고 있는 개

인들의 행동과 선택에서 비롯됨을 깔끔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오스트리아학파를 마르크스학파와 심지어 신고전학파로부터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지만, 미제스는 이 방법론의 적용에서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미제스가 모든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 현상에도 얼마나 확고하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킨이는 IEA에서 우송된 이 책을 읽은 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IEA에 번역 허락을 구하였으며 편집·기획 이사이신 필립 부스(Phillip Booth) 교수께서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셨다. 부스 교수와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 감사한다. 유킨이는 또한 이 책의 편집을 도와준 김지혜 선생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학교 당국의 지원에 감사한다.

## 저자 소개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박사는 필수 서비스의 전달에서 선택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설계해 온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The 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 학위들을 가지고 있고, 1978년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대에 그는 또한 미 하원을 위해 연금 및 복지 문제들도 연구했고, 미시건 주 힐스데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영국 보험 중개인(The British Insurance Broker)』의 편집자로서 봉사했고, 그 후에는 자기의 동료 매드센 피리(Madsen Pirie) 박사를 도와 창설한 애덤 스미스 연구소에 상근으로 전념하였다. 버틀러 박사는 노벨상 수상자들인 밀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에 관한 책들의 저자이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 현대 미시경제학 혁명의 근원(Ludwig von Mises: Fountainhead of the Modern Microeconomics Revolution)』의 저자이기도 하다. IEA를 위해 그는 『애덤 스미스 입문(Adam Smith—A Primer)』을 썼다. 그는 또한 지능과 IQ 테스트에 관한 많은 책들의 공저자이기도 하며, 영국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빈번하게 기고한다.



## 서문

내가 1999년 영국 공군에서 제대했을 때 기업가적 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컴퓨터 과학의 석사를 받았을 때 그것은 끝났다.

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까? 나는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오스트리아학파 경기 순환론과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용 경색은 내 마음에 오스트리아학파의 가치를 보강했고 이내 일단의 우리들은 코브던 센터(Cobden Center)를 설립했다. 그 센터는 토비 백선데일(Toby Baxendale)이 구상한 것으로, 맨체스터학파 자유주의(Manchester Liberalism)의 전통을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학파들의 자유 시장 사고를 촉진하는 IEA의 더욱 일반적인 업무를 보완할 오스트리아학파 영국 본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비록 지적인 연쇄가 계속적이지 않았지만, 미제스는 아마도 15세기와 16세기 살라망카 대학에서 경제학에 관한 체계적인 논저들을 처음 쓴 도미니크회 및 예수회 수도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사고 체계에서 지배적인 저자였을 것이다. 미제스가 알았듯이, 그들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상호 협동에 대한 개입이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

도 없다고 알고 있었다. 다른 상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폐에 대한 가격 고정은 현명하지 않고 반생산적이지만, 이자율의 중앙 통제는 바로 그것, 가격 고정이다. 그것의 과실은 우리의 오늘날의 위기다.

미제스의 업적은 놀랍다. 하이에크가 『사회주의: 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분석(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을 이해하기까지는 사회주의자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사회를 양립시키려고 씨름하지만, 방법론적 개인주의자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썼다. ‘사회는 협동이다. 그것은 행동 중인 공동체다.’

나는 모든 자칭 ‘자유주의자’가 『자유주의(Liberalism)』를 읽기를, 모든 은행업자가 『화폐와 신용의 이론(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을 읽기를, 모든 사회 과학자가 『인간 행동(Human Action)』을 읽기를 그리고 모든 정치가가 『이론과 역사(Theory and History)』를 읽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미제스는 비판자들에 의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잘못 읽고 있다. 약간의 진실들은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제스의 저작들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선택하는 것은 『관료제(Bureaucracy)』다. 우리가 알지 모르는 모든 관리 양식들과 도구들에 대해 민간 시민의 방식과 정부의 방식이라는 그저 두 가지 대안적 관리 범주들만 있음을 우리는 배운다. 즉 이윤 관리 아니면 관료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창출한 가치의 척도로서 이윤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창조적 탐색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우리가 길들여지기까지는 우리의 공공 서비스는 조악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 가격은 합리적 경제 계산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미제스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그의 ‘개입주의의 위기(Crisis of Interventionism)’를 버티어 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개입을 계속 쌓아가는 반면, 우리의 사적 부 준비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제한 조치들은 그저 산물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시장에의 개입은 명백히 반생산적이다. 여전히 대부하지 못하는 구제 금융 대상 은행들의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보라. 부는 만들어지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현행 정책들은 결국에는 번영, 안전 그리고 자유를 잃게 함에 틀림없다. 이 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독일 형태의 사회주의, 데이비드 스미스(David B. Smith)가 자신의 IEA 모노그래프 『리바이어던과의 동거(Living with Leviathan)』에서 보고한 현실이다.

추가적인 개입은 출구가 아니며, 수많은 생명들의 질이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난 100년 간 공공 지출은 요소 비용 GDP의 10 내지 15퍼센트에서 2010년의 예측치 53.4퍼센트로 가차 없이 올랐다. 우리는 미제스가 ‘제3의 길’에 관해 쓴 글에 대해 숙고할지 모른다. ‘중도 정책은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할부로(by instalments)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미제스는 다작의 작가였으며, 에이먼 버틀러는 대표적인 입문서를 제공하기로 착수하는 거대한 작업을 시도했다. 그는 수천 페이지

지의 원전으로부터 미제스의 사고의 정수를 추출하는 데 멋지게 성공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짧은 책을 내가 즐겼던 만큼 많이 즐기기를 희망한다. 어떤 대학 교수도 자기 학생들에게 원전을 읽지 말도록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의 소개에 관한 한 에이먼 버틀리의 입문서는 최고다. 그것은 미제스의 저작을 더 잘 이해하기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2010년 2월

위컴(Wycombe) 지역구 보수당 유망 의원 후보  
코브던 센터, 기업 문제 이사

스티븐 베이커(Steven Baker)

이 모노그래프에 표현된 견해들은, 모든 IEA 출판물들에서 그렇듯이, 필자들의 견해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본 연구소의 견해가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도 아니다.

## 요약

- 경제학은—관찰과 검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연역**의 과정을 통해서—사물을 발견하고 심지어 예측할 수 있는 과학이다. 기하학이나 수학이 소수의 간단하고 분명한 공리들에서 도출될 수 있듯이, 인간 행동의 과학도 행동과 선택의 바로 그 개념 그 자체에서 도출될 수 있다.
- 비용과 편익 같은 경제적 개념들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어서 해당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상이한 사람들이 상이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일단의 개인들이 오늘 시장 사건들에 보이는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내일의 사건들에 보이는 반응과 같지 않을지 모른다는 본질적인 점을 어떤 양의 통계도 극복할 수 없다. 가치는 수학적 분석을 받을 수 없다.
- 이윤은 단지 개인적 이득만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행동으로부터 얻는 행복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이윤은 우리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에 기여한 것에 관해 **그들이** 내리는 평가를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만족하는 고객들이 자진해서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서만 생긴다. 시장

사회에서 부는 특권이 아니며 오직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줌으로써만 온다.

- 시장 제도는 사람들이 단지 몇 년마다 한 번씩 투표할 기회를 얻고 이질적인 정책들의 꾸러미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 선거보다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수없이 많은 일상 거래들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한 푼 한 푼은 지속적인 투표에서의 한 표와 같이 작용하여, 어느 재화나 모두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지 결정하고 생산을 그것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곳으로 끌어들이는다.
- 자유 시장은 독점이나 독점 가격의 자연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반대로, 그들은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다양성과 차별화의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쟁을 질식시키려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과 정부가 없었더라면 카르텔들과 독점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점은 모든 생산이 국가 수중에 있는 사회주의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 사회주의 아래서는 생산재들은 공동으로 소유된다. 그것들은 결코 거래되지 않고, 결코 사고 팔리지 않으며, 공동 소유로서 존속되어, 그것들에는 시장 가격이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 가격과 이윤 없이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방법이 없다. 의사 결정은 정치적이고 관료적이 되어 낭비적 투자를 초래한다.

- 시장 경제를 ‘개선하려고’ 의도된 정책들은 사실상 시장 경제를 억압할지 모른다. 개입은 고맙지 않은 부차적 효과들을 초래할지 모르고, 부차적 효과들은 그 다음 추가적인 간섭을 정당화하는 데 잘못 사용되며, 간섭이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중국적으로, 설사 경제가 여전히 자본주의인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것으로 낙착된다.
- 국가 제도들이 시장이 하는 것을 빼어서 어쨌든 그것을 더 잘함으로써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한 자만이다. 이윤 동기가 없으면, 공공 기관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는지 측정할 명백한 방법이 없다. 기업가 정신을 위한 유인은 약하며, 관리자들은 위험 회피적이고 관료적으로 될 것 같다.
-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우리가 취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모두에서 본질적인 요소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자본재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를 연기하는 것은 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길이다.
- 화폐는 경제재이지만, 그것의 목적은 생산도 소비도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교환**이다. 화폐를 인쇄함으로써 정부가 인위적인

호황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이것 뒤에는 불가피하게 불황이 따라야 한다. 과오 투자가 청산됨에 따라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화폐 제도는 금과 같은 상품 본위제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 차례

옮긴이 서문 \_ 1

저자 소개 \_ 3

스티븐 베이커에 의한 서문 \_ 5

요약 \_ 9

제 1 장 미제스가 중요한 이유 .....	15
제 2 장 생애, 경력 그리고 저작 .....	27
제 3 장 경제 과학 .....	39
제 4 장 인간 행동의 논리 .....	51
제 5 장 동태 경제 .....	57
제 6 장 기업가 정신 .....	65
제 7 장 경쟁, 협동 그리고 소비자 .....	73
제 8 장 자본과 이자 .....	81
제 9 장 화폐와 인플레이션 .....	89

제10장 경기 순환의 비극 .....	101
제11장 사회주의의 문제들 .....	109
제12장 마르크스주의의 결함들 .....	121
제13장 개입주의와 관료제 .....	129
제14장 자유주의적 대안 .....	139
제15장 루트비히 폰 미제스로부터의 인용문들 .....	147
• 선택된 미제스의 책들과 논문들 _	159

제1장

## 미제스가 중요한 이유



## 제1장 미제스가 중요한 이유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들과 정치 과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통합하고 체계화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자기가 다루는 모든 것이 인간 개인들의 가치와 행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연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경제학자들이 **총 수요와 총 공급** 같은 측정치들 사이의 기계적 연관을 탐색하는 것은 헛수고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들의 다양성과 그런 개인들의 경제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단순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경제학은 그것의 원리들이 인간 목적과 행동의 바로 그 존재와 본질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연역적 과학이다.

미제스는 또한 방해받지 않는 자유 시장이 유일하게 작동 가능한 경제 체제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가격이 없이는 그것은 어떤 행동이든 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시장 경제

의 작동을 ‘개선할’ 어떠한 정부 노력도 변함없이 파괴적이라고 간주했다. 참으로, 관세와 보조금, 임금과 가격 통제, 재화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을 전반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미제스는 자유 시장 급진주의, 자유방임 정치, 그리고 철저한 자유주의를 위한 표준을 세웠다.<sup>1)</sup>

미제스가 1969년 미국경제학회의 특훈 회원(Distinguished Fellow)이 되었을 때, 그는 19권의 책의 저자로 간주되었는데, 그것들의 다수는 선구적인 만큼 방대하기도 하였다. 개정판과 외국판을 포함할 때, 그 수는 46권에 도달했다. 그리고 1973년 92세로 사망한 후 그의 연구에 관해 수십 개도 더 되는 번역, 개정 그리고 선집이 나타났다.<sup>2)</sup>

## 지적인 공헌

그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작품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공헌들을 선택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의 지적 업적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데 여섯 개의 주요 표제들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

1) 여기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미제스가 사용한 대로, 사적 자유와 제한된 정부라는 유럽의 의미에서 사용된다.

2) 그의 생애와 연구에 관한 더 완전한 기술에 대해서는 E. Butler, *Ludwig von Mises: Fountainhead of the Modern Microeconomics Revolution*, Gower, Brookfield, VT, and Aldershot, 1988을 보라.

## 경제학은 개인에 관한 것이다

첫째, 미제스는 **주관주의(subjectivism)**라고 알려져 있는 경제학 접근법을 개발하고 체계화했다. 이것은 경제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학의 근원을 개인들이 선택하고 사고 팔 때의 **개인들**의 행동과 동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거시 경제 변수(말하자면, **물가 수준**)가 (**총 수요**와 같은) 다른 거시 경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제스가 말하기를 이것은 전 체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것—해당 개개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간과한다. 사실상 ‘물가 수준’과 같은 것은 없다—시장에서 가격들은 육조의 수위처럼 모두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두가 매 순간 위 아래로 변하는 수백만의 개별 가격들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이 모든 가격들을 포착해서 기록할 수 있다거나 그것들의 어떤 평균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음 순간 그것들은 모두 다시 변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요**는 사람들이 사기로 결정하는 특정 재화의 수량이다—사람들이 사는 사과, 벽돌, 이발, 치즈, 구두, 기차 여행, 재봉틀, 유리 식기류, 금전 등록기, 혹은 제조재의 수량을 더한다고 여러분이 매우 유용한 통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사과에 대한 수요는 사과의 가격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재봉틀의 가격에 그리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실질적, 구체적 사물들은 서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의 평균과 총합은 단지 그 과정의 통계적 결과일 뿐, 그 과정을 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가격과 같은 사물에 반응하는 방식은 그 자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하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우리는 결국 인간 일 뿐이다. 특정 가격 변화는 개인들에게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도록 영향을 정말 미친다. 그러나 그 때도 상이한 개인들은—혹은 심지어 같은 개인이라도 상이한 시점들에서는—아주 다르게 반응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설탕 가격의 상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점들이 바닥나는 것에 대비하여 사재기를 하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설탕의 양을 줄이고 건강에 더 좋은 식품으로 바꿀 좋은 기회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넓은 측정치들 사이에 기계적 관련이 있을 리 없다. 모든 것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가진, 개인들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선택들에 달려 있다. 경제생활의 바로 이러한 개인적, 사적, **주관적** 토대는 통계적 총량들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탐구가 불가피하게 오도되는 거시 경제학자들에게 생활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허깨비 관계에 수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계량 경제학자들에게는 생활을 아주 불가능하게 한다.

미제스가 이 접근법의 창안자는 아니었다. 그것은 카를 멩거(Carl Menger)가 1871년에 쓴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고안되었고, 이미 멩거가 창설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규정적 특

정이 되었다. 그러나 미제스가 행한 주요 공헌은 이러한 사고를 전 범위의 경제 문제들에 엄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주류 경제학의 근본적인 오류들을 폭로하였다.

### 화폐의 본질과 작용

이것의 한 예는 미제스가 화폐 그 자체와 같이 경제생활에 기본적인 어떤 것의 진정한 본질과 역할을 드러낸 방식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화폐를 단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만 여겼다. 그것은 (어쩌면 병리적인 수전노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그 자체 ‘수요’되거나 ‘소비’되는 ‘경제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개인들의 평가에 달려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표준적인 가치 척도인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미제스는 어떤 다른 경제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바로 그 시장의 힘이 또한 화폐의 ‘가격’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수요하는 화폐량—그들이 자기들의 지갑, 금고 그리고 은행 계정에 넣어 바로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화폐의 양—은 자기들이 미래의 교환을 행하는 데 그것이 얼마나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다른 경제재와 같이 화폐는 희소

하다. 그래서 그들이 화폐가 지닌 교환의 유용성에 대해 화폐를 더 높이 평가할수록,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수요할수록, 그것의 가격—혹은 우리가 보통 그것의 **구매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 편의 분석은 놀랄 만한 업적이었는데, 특히 미제스가 그것에 관해 썼을 때 그의 나이가 겨우 30살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폐란 초연하고 비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가치의 반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화폐를 시장 분석의 범위 내로 끌어들었다.

### 경기 순환

그러한 통찰력으로 미제스는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던 어떤 다른 것, **경기 순환**—수년에 걸쳐 볼 수 있는 사업 활동, 가격 그리고 소득에서의 율동적인 상승과 하강—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순환의 궁극적인 원천이—변함없이 중앙은행과 그것의 정치적 주인에 의해 조장되는—은행 신용의 급증임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18세기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유통 중인 화폐량이 어떤 이유로 증가할 때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것으로 느끼고 더 많이 쓰지만 이 추가적 소비는 단지 가격을 올릴 뿐 누구도 더 낮게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것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다. 그러나 미제스는, 동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그것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쁨을 알았다. 소비 호황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제품에 실질 수요 증가가 있다고 믿게 한다. 반면, 신용 급증은 대부를 더 싸게 한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더 많이 빌린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격 신호에 근거한 잘못된 과잉 투자—**과오 투자(malinvestment)**—이다. 오래지 않아, 공중의 돈을 물 쓰듯 쓰는 일은 가격 상승으로 억제된다. 그리고 낮은 이자율에서 사람들은 기업들의 새 투자 계획들을 재원 조달할 만큼 충분히 저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업가들은 수요 하락과 차입 비용 증가 사이에 끼는 처지가 된다. 그들의 새 사업들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실질 자원은 낭비된다. 잘못된 호황은 고통스러운 불황을 야기했다. 미제스에 따르면 —금 본위제와 같이—화폐 창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만이 그러한 순환과 그것이 야기하는 손해를 예방할 것이다. 미제스 이전의 경제학자들도 이미 경기 순환에 관해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미제스는—신용에 관한, 생산 구조에 관한 그리고 이자율에 관한—다양한 이전 견해들을 호황과 불황에 관한 통일된 이론으로 통합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눈부신 업적이었다.

## 자본, 이자 그리고 시간

미제스는 또한 우리가 자본과 이자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도 했다. **이자**는 자연의 죽은 사실—저축에 대한 어떤 자동적인 ‘수익’—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오히려 그것은 관련 개인이 어떻게 미래를 평가하는지—구체적으로, 그들이 내일의 생산을 더욱 풍부하게 할 어망, 쟁기 날 그리고 기계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부—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더 큰 소비 사이의 이러한 대체 관계는 모든 경제 계산들에서 **시간**—주류 교과서에서는 대개 간과되었거나 오해되었던 것—의 결정적 중요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사물을 단순화하려고 하면서 교과서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른다. 이것들 중 하나는 **자본(capital)**을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전임자,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의 연구에 토대를 두고서) 미제스는 **자본**이 각각 서로 다른 구체적인 **자본재들(capital goods)**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증기 망치는 비용, 기능, 사용의 신축성 그리고 재배치의 용이성 면에서 모루 및 나무망치와 아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자본재들의 정확한 **분류**는 우리 경제의 진행에 결정적인 관계를 가질지 모른다. 상이한 자본재들을 단순히 ‘자본’으로 같이 묶음으로써 거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류**의 자본재에 투자—미제스가 경기 순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결국 실질

손실을 초래함에 틀림없는 **과오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을 간과한다.

### 사회주의 계산의 불가능성

미제스가 행한 다섯 번째의 주요 공헌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 계산이 그저 불가능하게 될 뿐이라는 근거에서 그가 사회주의를 타파한 것이었다. 생산 수단들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따라서 전혀 매매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들에 가격을 매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여러 생산 과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싼지 알 수 없고 그러므로 그것들 사이에서 선택할 합리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가피하게, 지나치게 비싼 생산 과정들이 선택될 것이고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시장 경제는 생산자들에게 가장 비용-효과적인 과정들을 선택하도록 경쟁적 압력을 가—하고 따라서 낭비를 줄이며 긴요한 자원을 다른 목적을 위해 손대지 않고 보존—한다.

이것은 20세기 초기 내내 유럽에서 격렬하게 이어졌던 사회주의 논쟁 동안 특히 두드러진 점이였다. 그것에 대응하여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마치’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원이 배분될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제안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상이한 시장 가능성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그저 다수의 연립

방정식들을 푸는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제스는 되받아쳤다. 시장 사회주의란 그것이 모방할 **실제** 시장 가격이 존재할 때에만 작동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이 결코 무척 멀리까지 확산될 수 없거나 근거로 삼아 판단할 실제 가격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수학적 계획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획이 진행 중에 상황이 불가피하게 바뀌고 그래서 수학자가 소화할 ‘연립 방정식’ 자료를 결코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주의는 그저 논리적으로 강건하지 않을 뿐이다.

### 가르침과 영향

미제스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넓고 오래가는 영향력을 끼쳤다. 그의 가장 빛나는 학생,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그들 둘이 같이 행한 경기 순환에 관한 연구로 머지않아 노벨상을 받았다. 다른 송배자, 라이어널 로빈스(후에 로빈스 경)는 머지않아 영국 정부에 대한 자문가가 되었다. 또 한 사람, 자크 뤼에프(Jacques Rueff)는 프랑스에서 드골 장군에 대한 경제 자문가가 되었으며, 세 번째, 루이지 에이나우디(Luigi Einaudi)는 이탈리아 대통령이 되었다.

사실상, 미제스는 전 세대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과 자유주의

사회 사상가들에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에는 (정보 사회의 경제학을 개척한) 프리츠 매클럽(Fritz Machlup), (국제 무역, 기회비용, 환율 그리고 생산 효율에 관해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쓴) 곱프리트 하벌리(Gottfried Haberler),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이즈리얼 키즈너(Israel Kirzner), (자유주의 고전 『인간, 경제 그리고 국가』의 저자인) 머리 로스버드(Murray Rothbard),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다. 미국과 유럽에는 그의 이름을 딴 연구소들이 있다. 그의 책들은 전 세계에 걸쳐 대학과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습을 타파하는 그의 사상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

제2장

## 생애, 경력 그리고 저작



## 제2장 생애, 경력 그리고 저작

### 유럽과 미국에서의 경력

루트비히 폰 미세스는 그의 아버지가 철도의 자금 조달과 건설 일을 하고 있던 갈리시아 주(Galicia)(지금 우크라이나의 르비프 주(Lviv))의 렘베르크(Lemberg)에서 1881년 태어났다.<sup>3)</sup> 그러나 그는 주로 빈에서 자랐고, 1900년에 빈 대학에 들어갔으며, 1906년에 법과 경제학 박사 학위로 졸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이 그도 처음에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신봉했지만, 카를 멩거의 『경제학 원리』를 발견한 후 그는 개종하여 자유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개인 선택이 유일하게 건전한 경제 연구 토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3) 더욱 상세한 자서전에 대해서는, Ludwig von Mises, *Notes and Recollections*, Libertarian Press, South Holland, IL, 1978을 보라. 또한 Eamonn Butler, *Ludwig von Mises: Fountainhead of the Modern Microeconomics Revolution*, Gower, Brookfield, VT, and Aldershot, 1988도 보라.

## 공식적인 경제적 지위

졸업 후, 미제스는 경제 정책 문제들에 관해 정부에 자문하는 준(準)공공 단체인 오스트리아 상업회의소에 근무했다. 그는 곧 그것의 가장 저명한 분석가—1912년 그의 기념비적 저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의 출판으로 공고해진 지위—가 되었다.

미제스는 대학 선생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직업에서 결코 올라가지 못했다—자신의 인기 없는 자유주의적(liberal) 자유 시장 견해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그는 믿었다. 1913년 그는 빈 대학에서 정말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대학 봉급보다 학생들의 사례에 의존해야 하는 **무급 강사(privatdozent)**일 뿐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군 복무한 후, 미제스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분할한 강화(講和) 국면들을 관리하는 전쟁 배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여기서 그는 젊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만나 고용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무급 강사**로 복직할 수 있었고, 많은 훌륭한 자유주의 학자들을 모은 개인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 학문 연구

1922년 미제스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저서, 『사회주의』를 출판

했다. 그러나 화폐와 신용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속되었고, 1927년 그는 오스트리아 경기 순환 연구소를 창설했으며, 여기에서 하이에크가 그와 합류했다. 같은 해에 그는 『자유주의』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자유 사회의 근본 원리들을 다시 만들고 다시 진술했다.

경기 순환에 관한 그의 연구는 오스트리아 경제 상태에 관해 미제스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다. 이때는 독일에서 큰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는데, 통화 가치가 아주 크게 떨어져서 1 금화 크라운 화폐가 되는 데는 14,400 지폐 크라운 화폐가 필요하였다. 미제스는 1920년대의 과잉 발행의 불가피한 결과로 금융 및 은행 제도가 광범위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대학원의 국제경제관계론 교수로 초대받았을 때 미제스는 열렬하게 받아들였다—하기야 히틀러가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때까지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상업회의소에 시간제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유대인 가계와 격렬한 반(反)전체주의는 그를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망명자 그리고 스위스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게 했다. 1940년 그와 그의 아내 마르기트(Margit)는 미국으로 도피했고, 1946년 미국 시민이 되었다.<sup>4)</sup>

---

4) 저명한 응용 수학자인 그의 동생 리처드(Richard)는 이미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었다.

## 미국에서의 저술과 교육

비록 그의 학문적 명성이 앞에서 그를 이끌었지만, 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미제스는 이미 60대였고, 그는 대학에 자리를 찾으려고 고심하였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그의 영어 능력과 화를 잘 내는 그의 개성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45년과 1969년 사이 그는 뉴욕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하기야 그저 무급 객원 교수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들은 매우 활동적이었다. 미제스는 빈에서 그렇게 했듯이 재능 있는 학생들과 선생들을 자기 세미나에 끌어들였다. 그는 『관료제』, 『전능한 정부』, 『반자본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론과 역사』 같은 책들을 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비자유주의 사고에서의 결합들을 노출시켰고 경제 과학의 방법에 관해 중요한 새로운 통찰력들을 포함했다. 그 다음 1949년 그의 대저서 『인간 행동』은 경제학과 개인주의를 인상적인 전체로 통합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의 말년에 미제스는 명예 학위들과 기타 표창들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1973년 10월에 만인이 인정하는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대가로 세상을 떠났다. 정확하게 1년 후 그의 추종자이자 친구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그들이 공동으로 개척한 경기 순환 이론에 대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 경제학, 정치 과학 그리고 방법에 관한 저작

자신의 성인기 내내 미제스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반국가주의 신념을 고수하였다. 심지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élérin Society)—1947년 하이에크에 의해 창설된 자유주의 사회 사상가 단체—의 첫 모임에서도 미제스는 누진 소득세에 관한 토론 중 “당신들은 모두 사회주의자 무리야(You're all a bunch of socialists)!”라고 소리치면서 퇴장했다. 자기 제자 프리츠 매클럽(Fritz Machlup)이 한 때 금 본위제가 현명한지를 의심했을 때, 미제스는 3년간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아마도 유럽에서의 양차 대전 간 경험으로부터 미제스는 사회주의와 타협하는 것의 위험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이었고 그가 지닌 타협할 줄 모르는 견해는 그의 대학 경력을 방해하였다. 심지어 아주 난해하게 이론적인 그의 저작들도 종종 국가주의로 나아가는 지적 표류에 반대하는 통렬한 논쟁—학구적인 독자들이 불안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피셔, 마셜 그리고 케인스 같은 영어권 저작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 미제스가 독일어로 글을 썼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지혜의 그 본체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그의 저작들은 번역이 늦었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들의 몇몇은 그의 원래의 전문 용어를 그다지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영어로 정말 썼을 때조차도 그가 의미하는 바가 모호할 수 있고 그의 어휘 선택으로 종종 잘못 표현되어 그는 유창

함이 부족했다. 그는 때때로 그저 몇 페이지 사이에 가장 난해한 학문적 추론에서 자기가 결함이 있다고 여기는 견해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난의 말로 날아간다. 특히 그의 신랄하고 긴 비난은 현대 독자들을 쫓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지지할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여전히 혁신적이고 강력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하기 때문이다.

### 경제 이론에 관한 저작들

그의 1912년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탁월한 업적이었다. 범위에서 넓고 세목에서 꼼꼼하게 그것은 미시 경제 분석을 화폐, 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론에 응용하였다. 그것은 유럽 대륙에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하기야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것은 1년 전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거시 경제 접근법에 의해 광채를 잃긴 했다. 그러나 화폐와 신용에 관한 그의 연구와 특히 신용으로 조장된 과오 투자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기 순환에 관한 그의 설명은 미제스가 경제 과학에 대해 행한 가장 중요한 공헌들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인간 행동』은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인데, 즉 경제학을 미제스가 **프랙시올로지(praxeology)**라고 부르는 더욱 일반적인 **인간 행동 과학**의 그저 한 부분으로서 대담하게 다시 진술하였다. 그것이 설

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학의 원리들은 인간 목적들과 선택들에 관한 몇 개의 자명한 공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들이** 어떻게 사건들에 반응하는지의 중요성과 그런 결정들에서 시간, 불확실성 그리고 추측이 행하는 중대한 역할—주류 거시 경제학이 대개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토대로부터 『인간 행동』은 화폐, 독점, 경쟁, 인플레이션, 정부 역할 그리고 그밖에 많은 것의 진정한 본질에 관해 참신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 사회 조직의 체계들

올바르게 이해된 경제학은 어떤 종류의 경제 혹은 사회 조직이 실행 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지에 관해 중요한 길잡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세스는 믿었다. 그의 1919년의 책 『민족, 국가 그리고 경제』가 좋은 예이다. 그 책은 자기들의 문화를 보존하기를 열망하는 민족들이 보통 다른 집단들의 이민을 저지하고 그들에 대해 보호주의 장벽을 세운다고 주장한다. 그 순 효과로 다른 민족들을 가난하고 인구가 과잉된 지역에 가두어서 적개심을 조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영토를 그저 장악하도록 촉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권력이다. 오직 그 국가 권력을 폐지하는 것만이 갈등을 끝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갈등의 수단이다. 사회주의 경제들은 자신

들을 고립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민이 그들의 면밀한 계획을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이다. 시장 경제들은 항상 그들을 능가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신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다른 국가들을 사회주의화하도록 애써야 한다.

미제스는 1922년 *다른 대(大)저서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견해들을 개발했다. 그것은 많은 신랄한 의견들을 내었지만, 그것의 가장 충격적인 주제는 사회주의 아래에서는 합리적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가격이 없이는 생산재가 비용-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1929년의 *『개입주의 비판』*은 완화된 사회주의라고 더 나올 것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도 예상 밖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를 낳는다고 그것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우유의 가격을 억제하면 우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생산자들은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덜 이익이 된다. 불가피하게,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개입한다. 등으로, 오래지 않아 드디어 점차적 개입이 완전한 사회주의로 바뀐다. 항상 대(大)논객이었던 미제스는 같은 주제를 *『자유를 위한 계획』*과 *『경제 정책』* 같은 다른 책들에서 다루었다.

짧고 입을 만한 1944년의 모노그래프 *『관료제』*에서 미제스는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결코 기업가가 될 수 없는지 보여주었다. 기업은—이윤 가능성이라—하나의 단순한 검증에 직면하지만 정부 기관은 많은 경합하는 정치적 요구들을 숨씨 좋게 다루는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그는 말한다. 역시 1944년에, 그의 책 『전능한 정부』는 개입주의가 어떻게 생산성을 낮추고, 더욱 이익이 남는 영토를 얻으려는 수요를 초래하며, 전쟁을 초래하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자극하는지 다시 진술했다.

1927년에 출판된 『자유주의』는 유일한 대안에 관한 우아한 진술이다. 경제 번영은 전문화와 거래에 달려 있다고 그것은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생산 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환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은 평화와 자유를 필요로 하는데,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평화와 자유는 평등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이러한 권리들을 시행하는 것과 평화를 보존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만약 정부들이 사적 소유권을 침식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부들이 그렇게 하기는 너무 쉽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평화를 위한 힘이다. 미제스는 말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전쟁을 덜 할 것이라고.

### 방법론적 저작들

미제스는 경제 이론과 방법에 관해 3권의 전문적인 책들을 썼다. 경제학은 물리학과 같은 실험 과학이 아니라, 개인들이 목적에 맞게 행동한다는 단순한 공리로부터 모든 명제가 **연역될** 수 있는, 오

히려 수학과 같은 연역 체계라는 점을 그가 개설한 것은 1933년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에서였다. 이러한 토대로부터 선호, 비용, 시간, 이자 그리고 그밖에 많은 개념들이 자연적으로 나온다. 오직 **관찰**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역** 방법은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준다—그리고 그것은 경제학이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1962년에 출판된 『경제 과학의 궁극적 근거』는 자연 과학의 실험적 방법이 왜 경제학에는 적합하지 않은지 다시 보여주었다. 미세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그러한 분명한 점으로부터 우리는 목적, 수단, 성공, 실패, 이윤과 손실의 개념들을 도출할 수 있다. 경제학자는 그밖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찰과 실험의 방법은 경제학에서는 부적합한데, 왜냐하면 측정 가능한 상수가 없고 우리가 가치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개인들의 행동을 예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가 예측 가능하다는 신념은 그것이 또한 통제 가능하기도 하다는 국가주의적 자만을 낳는 바로 그것이다.

1957년의 『이론과 역사』는 이러한 비판을 다른 학문 분야들에도 적용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마르크스 이론과 방법의 비판이고, 부분적으로 자유주의의 변호이다. 인간 선택의 예측 불가능성은 사회주의 혹은 어떤 다른 역사적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고 그것은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모든 경제적 데이터가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것이라는 중요한 주장

을 하기도 한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이론들을 우리가 다듬으려고 고심함에 따라, 우리는 이론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모두 지나간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우리의 견해에 생기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데이터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 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일에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미제스가 오늘에 남긴 유산

미제스는 자신의 기고가 경제 및 정치 이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비관적이었다. 그는 자기의 저작이 더욱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희망했지만, 그의 생애 내내 사회주의와 개입주의가 여전히 유행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 후 현실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합들이 생생하게 노출되었다. 동시에 무역 자유화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의 생활수준을 높였고 옛날 제국주의 교전 국가들에서 동맹국들을 만들었다. 미숙한 화폐 및 신용 정책에 의해 경기 순환이 야기된다는 견해는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부터 더욱 맞춤형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은 비개인적인 힘보다 개인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연구는 오늘날 그가 한 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제3장  
경제 과학



### 제3장 경제 과학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의 학문 분야가 과학적이기를 원한다. 자연 과학자들처럼 그들은 사물들 사이의 연관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 예측하기를 원한다. 미제스는 경제학이 정말 과학적이지만 물리 과학들의 방식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과학적이라는 견해를 취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예측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다시 종류와 정확성이 아주 다르다는 견해를 취했다.<sup>5)</sup>

다른 점은 모든 경제 현상들이 관련 **개인들**의 가치, 선택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말하자면 **물가 수준**과 같은—한 경제 변수가—**총 수요**와 같은—다른 경제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한다. 사실상, 물가 ‘수준’과 같은 것은 없고, 각각이 서로에 비해 변동하는 수백만의 구체적 가격들이 있다. 상이한 가격들은 상이한 개인들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들의 구체적인 개인적 필요와 전망에 따라 그리고 그 특

---

5) 이 접근법의 완전한 설명에 대해서는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를 보라.

정 시간과 장소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에 관해 기계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경제학은 사물들 사이의 예측 가능한 통계적 연관들에 관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가격, 비용, 화폐, 실업, 환율, 지출 그리고 저축과 같은 경제 개념들은 관련 개인들에 대한 그것들의 의미라는 면에서와 그 결과로 그런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면에서가 아니라면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학은 인간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치는 자연 과학자들이 다루는 질량이나 온도나 길이 같이 객관적인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가치는 어떤 수학적 척도에서 측정될 수 있는 재화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상이한 사람들은 사물을 상이하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주식 시장 가격 상승을 주식을 살 타당한 이유로 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팔 좋은 기회로 볼지 모른다. 가치는 개인의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은 감정적인 어떤 것,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재의 심리적 및 생리적 상태에도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필요가 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들이 튀어나오고 새로운 과정들이 대체 재화들을 더 싸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재화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게 한다.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행품의 대량 생산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입 가능할 정도로 매력적이게 할지 모르나 유행을 의식하는 부자들

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할지 모른다.

인간 가치가 개인적이고 다르며 변화한다는 사실은 경제학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수요’와 ‘투자’ 같은 낱어는 거시 경제 총량들은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행동들—다양하고 개인적이며 결코 통일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그저 통계적으로 요약한 것일 뿐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이 통계들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사건들에 의해 움직이고 또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형성하기도 하는 개인들의 가치를 참조하지 않고는 그것들은 설명될 수 없다.<sup>6)</sup>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이 거시 경제 총량들 사이에 통계적 연관들을 찾아내느라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예를 들면,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점도 똑같이 명백하다. 정확한 결과는 특정 사건들이 그 당시 거기에 있는 개인들에 대해 지니는 의미와 그 결과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경제 ‘법칙’(이나 더욱 나쁘게는 ‘상수’)의 탐색은 잘못 안 것이다.

## 인간 행동 과학

비록 경제학이 인간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심리학

---

6) 이 접근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로 알려져 있다.

의 한 분야가 아니다. 그것은 왜 사람들이 특정 사물들을 선택하느냐—말하자면, 왜 그들이 술을 마시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에서 그러한 선택들이 나타내는 **결과들**—그들이 무슨 가격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을 요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경제학은 개인들의 가치와 목적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행동에만 관심을 쏟는다. 그것은 더욱 일반적인 인간 행동 과학, **프랙시올로지(praxeology)**의 일부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리고 인간 경제 행동의 이러한 과학적 연구—인간 교환 활동의 신바람에서 어떻게 가격이 생기느냐—를 서술하기 위해 그는 **교환학(catallact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한 교환들의 전반적인 결과를 그는 **캐탈락시(catallaxy)**라고 부른다—**경제(the economy)**라는 용어는 그 모든 것을 너무 기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듯이 여겨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어서다.

그러나 과학으로서 교환학은 관찰과 검증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물을 발견하고 유용한 예측을 하는 자연 과학들과는 전혀 다르다. 첫째로, 경제학자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관찰할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둘째로, 경제적 결과는 결코 검증될 수 없는 데, 왜냐하면 정확한 상황이 결코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 그들의 선택들, 그들의 가치들과 그들의 동기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관찰과 검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연역**을 통해서—사물을 발견하고 심지어 예측할 수 있는 과학이라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기하나 수학이 선과 수에 관한 몇 개의 단

순하고 분명한 공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과 꼭 같이, 인간 행동 과학도 행동과 선택이라는 바로 그 개념 그 자체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

### 행동으로부터 가치를 해석하기

우리는 개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발견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실제 **선택들**을 과학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 이론들의 궁극적인 기원이 공교롭게도 매우 접근 불가능하며 개인적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하자면) 수요 이론과 가격 이론을 쌓아 올릴 수 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사실상 내리는 실제적 선택들로부터 인간 가치들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시장에서 사람의 실제 선택들은 그 사람이 사실상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들의 선호 척도에 관한 어떤 것—미제스가 **표명된 선호** (demonstrated preference)라고 부르는 것—을 드러낸다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닌 가치들을 알 수 없지만, 각자가 실제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다른 것 대신 선택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남겨 두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 역시 그들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남겨두는 **일련의**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각 개인이 우리 자신과 같이 확장된 **가치 척도**를 지니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미제스가 경제학의 원리들이 행동의 개념 그 자체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어렵듯이 알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선택할 때, 그것은 그들이 일단의 가치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개인이 실제로 정확하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 필요가 없이, 선택의 **논리**는 우리에게 경제학의 근본 개념들—효용, 비용 그리고 교환과 같은 개념들—을 제공한다.

### 효용 분석의 예

경제학자들이 **한계 효용 분석**(marginal utility analysis)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접근법이 작용하는 좋은 예이다. 한 세기 동안 경제학자들은 생활에 그렇게 필수적인 물과 같은 것이 싼 반면 그렇게 비

필수적인 다이아몬드가 비싼 문제와 싸웠다. 왜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그렇게 더 크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의 창시자 카를 멩거가 그 답을 제공했다. 개인들은 추상적으로 ‘물’과 ‘다이아몬드’ 사이에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나 모든 세계 다이아몬드를 가지는 선택에 직면하지 않는다. 유일한 선택은 그들이 어떤 소량의 물을 원하는지 아니면 새 다이아몬드 한 개를 원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충분한 물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그들은 추가적인 찻잔 한 잔 분의 양을 실제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물이 싸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많은 다이아몬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결코 믿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하나 더 얻는 데 돈을 들킨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싸다.

물론 사막에 있는 사람은 한 잔의 물을 참으로 매우 높게 평가할지 모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이아몬드 재산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과 다이아몬드에 존재하는 고정된 ‘가치의 양’은 없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제공되는 **실제 양**과 그 순간 자기들이 처한 **개인적 상황**과 마음 상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것은 모두 가치와 선택이 깔끔한 수학 방정식으로 측정되고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통이 있는 어떤 사람은 2개의 아스피린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100개의 아스피린이 50배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난처를 완성하는 데 10개의

통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10개, 20개 혹은 30개 통나무를 얻는 대가로 레인코트 한 벌을 줄지 모르지만, 비를 막지 못할 9개의 통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일정량의 물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그들이 다른 양을 어떻게 평가할지 알기 위해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산수는 없다.

### 주류 경제학에서 저지르는 잘못된 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약간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다른 것의 보답으로 포기해야 하는 교환이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 사람들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그 대답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최소의 편익을 가져다 줄 어느 것이든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것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덜 유용한 부분의 가치만 고려하면 된다. 그들은 경제학자들이 부르듯이 **한계 효용(marginal utility)**에 근거하여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유사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교환으로 받아들일 것을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더욱 유용한 어떤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경우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는 **한계 효용**이 더 클 때뿐이다.

이러한 분석의 많은 부분은 주류 경제학에 침투했는데, 하기야 그것이 종종 오해되곤 했다. 많은 사람들은 **효용**을 재화에 대한 각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 보기보다 재화에 존재하는 특질로 취급한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총 효용’의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 ‘효용’의 ‘블록들(blocks)’이 더해지는 교과서에서 발견된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러나 인간 감정, 인간 가치는—아스피린 예가 보여주듯이—이와 같이 측정되고 합해질 수 없다.

교과서에서 낯익은 ‘무차별 곡선’도 똑같이 흠이 있다. 이 매끄러운 그래프는 개인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포기할지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 선택들에 직면할 때 내린 결정들로부터 그들이 어떤 다른 집합의 선택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말하도록 보외(補外)할 수 없다. 인간 가치들은—통나무 예에서 보듯—그렇게 매끄럽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사고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고민거리를 쌓는다고 미제스는 믿는다. 과거의 실제 선택들에 관한 몇 개의 관찰들에 근거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미래 선택들에 관해 예측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일정한 (말하자면, 소비 혹은 저축) ‘성향’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구성들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어떤 사람의 과거의 선호는 그가 미래의 어떤 다른—가상적인 선택은 말할 것도 없고—실질적 선택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없다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주류 경제학이 인간 가치의 진정한 풍부(richness)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경제재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을 그것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gent)’로 본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선택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감정적이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예를 들면, 개인들은 재정적 이득보다 개인적 명예를 선택할지 모른다. 주류 경제학은 그 이야기의 이 중요한 반(半)을 빠뜨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신의 이론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제4장

## 인간 행동의 논리



## 제4장 인간 행동의 논리

의식적인 인간 행동의 사실은 직관적으로 분명하고, 행동은 그저 우리가 덜 선호되는 상황보다 더 선호되는 상황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러한 직관적인 선호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자기들의 불만족을 극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한계 효용(marginal utility) 및 교환(exchange)과 같은 개념들이 나온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는 것들에 대한 대가로 자기들에게 가장 적은 만족을 주는 것들을 포기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관찰과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행동 개념 그 자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sup>7)</sup> 그 개인의 특정 가치들이 우연히 무엇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선호와 필요가 무엇이

---

7) 하기야 그의 오스트리아학파 추종자, 노벨상 수상자 하이에크는 경제 과학이 전적으로 자명한 진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는데, 왜냐하면 ‘비록 내가 그것의 많은 부분이 단지 일정 초기 사실들의 논리적 함의들을 작성하는 데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그와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것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가능성을 부정했고 그래서 실제적 관찰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했기 때문이다. ‘Coping with Ignorance,’ in E. Butler (ed.), *Knowledge, Evolution and Society*, Adam Smith Institute, 1983을 보라.

전, 행동의 논리는 그들이 가장 절박한 것을 먼저 충족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추론으로 우리는 **목적과 수단** 혹은 **이윤과 손실** 같은 다른 경제 개념들을 그려볼 수 있다.<sup>8)</sup>

**목적**은 행동이 추구하는 결과이고, **수단**은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러나 물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이것은 행동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또 하나의 공리인데,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전혀 행동하도록 애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들**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하며, 다른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치는 소위 **비용(cost)**이다. 그 결과 우리가 달성하는 목적에 관해 우리가 내리는 평가는 **편익(benefit)**이라 불린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이윤(profit)**이라 부른다(혹은 일이 잘못되면 **손실(loss)**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개념들—비용, 편익, 이윤과 손실—은 모두 전적으로 **개인적(personal)**이다. 그것들은 가치에 관한 우리의 감정적 판단들이다. 그것들은 **객관적이지**—자연 과학자들이 다루는 사물들과 같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지—않고 **주관적**—해당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수리 분석

---

8) 이 장에 요약되어 있는 논거들의 포괄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Human Action*을 보라.

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비탄, 시기 혹은 사랑과 같은 어떤 다른 감정이 수리 분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 교환과 가격의 기원

그리고 가치, 비용, 편익, 이윤과 손실의 이러한 대단히 개인적인 성질은 우리가 물건들을 거래하고 교환하는 이유다. 만약 가치가 사물들의 객관적 특질, 그것들의 크기나 무게 같은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한 재화를 명백히 가치가 덜한 다른 것과 교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들을 **정말** 교환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물들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싫증내는 장난감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것들과 교환한다. 빵 굽는 사람은 고깃간 주인으로부터 고기를 사기 위해 빵을 판다. 어떤 새로운 장난감들도, 빵이나 고기도 교환으로 창조되지 않는다—그러나 누구나 다 교환 때문에 자기들의 상태가 더 나아진다고 여긴다. 참으로, 만약 그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물들을 일부러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각 당사자가 그러한 거래로부터 얼마나 많은 심리적 **이윤**을 얻는지 결코 알거나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느 것의 양—예를 들면, 빵 굽는 사람이 한 조각의 빵의 대가로 요구하는 화폐의 양—

을 적어도 보고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환율은 소위 **가격** (price)이다. 원시적인 물물 교환 경제에서는 한 조각의 빵의 가격은 그러그러한 양의 고기나 그러그러한 양의 어떤 다른 재화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대 경제에서는 가격은 달러, 파운드 혹은 해당 현지 통화로 표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들이**, 비록 명백히 관찰 가능하더라도, 사실상 사물들의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빵이나 고기나 어떤 다른 재화의 **시장 가격**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서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교환율** 일 뿐이다. 그리고 그 교환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각 교환은 단 하나의 **가격**만 수반하지만, 상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개의 **평가들**을 수반한다.

### 교과서 경제학의 잘못된 기초

미제스는 이 간단한 추론이 주류 경제 모형의 불합리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물론 ‘완전 경쟁’의 교과서 사례는 그저 현실 세계의 단순화로서만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동일하고 어떤 구매자나 판매자도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형은 현실 세계의 단순화가 아니라 그것의

완전한 부인이다. 시장이 작동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고, 가격들이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상이한 평가들에 근거하여 교환하기 때문이다.

가격들도, 모형들이 암시하듯이,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격들에 관해 주어져 있거나 심지어 일관성 있는 것이 있을 리 없는데, 왜냐하면 가격들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인간들 사이의 셀 수 없이 많은 거래들의 결과로 발생하고 인간들 각각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선택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 가격’이라는 교과서 관념은 명백히 터무니없다. 그리고 모든 시장들이 균형에 처해 있는 ‘일반 균형’ 모형을 수립하려는 시도는 더욱 더 크게 어리석다. 이런 모형들은 시장들이 작동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정에서 제외한다.

미제스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다. 초기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가치 판단들이 모든 경제 사건의 중심부에 있다는 견해를 개발했고, 한계 효용의 분석과 주류 이론들의 비판을 개척했다. 그러나 미제스가 행한 강력한 공헌은 이러한 초기의 다양하고 종종 지리멸렬한 생각들을 실험적이기보다는 연역적인 과학으로서 포괄적인 경제학 접근법—논쟁의 여지 없이 그가 가장 확고하게 옹호했던 접근법—으로 맞추고 연마한 것이었다.

제5장  
동태 경제



## 제5장 동태 경제

미제스에게는, 가격이 비(非)개인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균형 경제에 관한 교과서 모형들은 경제학에서 경제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버린다. 경제학의 전 기초는 인간 행동이고, 인간 행동은 변화—한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를 의미한다.<sup>9)</sup>

### 변화는 경제학에 고유하다

우리는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연적 사건과 조건은 변한다. 풍작과 흉작이 있고,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며, 오래된 자원이 고갈되거나 노후화되거나 우연히 화재 혹은 홍수로 파괴된다. 또한 인간 조건도 변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이동하며,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대체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온다. 생산 방법도 변하여, 새로운 공정이 고안되고 낡은 공정은 무용지물이 된다.

---

9) 이러한 논거의 체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Human Action*을 보라.

부분적으로 미제스와 그의 오스트리아학과 동료들 덕분에,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제 변화의 중요성을 상당히 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전히 경제가 하여간 고정되어 있으며 정태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그래프, 모형 그리고 방정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의 예가 ‘균형 이론(equilibrium theory)’—어떤 가격 수준에서, 판매자들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제품의 양이 구매자들이 사기를 원하는 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시장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곡물 시장이 빵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교과서들은 모든 시장이 동일한 완전 균형에서 정지하는 ‘일반 균형(general equilibrium)’ 세계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그러나 시장들은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미제스는 그저 주식 거래소에서 변동하는 가격들을 보기만 하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중력이 한 쪽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분수가 다른 방향으로 밀게 됨에 따라 여기저기 재빨리 움직이는 분수 위 탁구공과 더욱 닮았다. 순간 촬영 사진은 그 공이 완전 균형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 비슷하게, 경제의 순간 촬영 사진—예를 들어, 어떤 ‘균형 가격’에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고전적인 교과서 그래프—은 안정성에 관해 똑같이 그릇된 인상을 준다. 경제학자의 정당한 역할은 순간 촬영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공이 공중에서 여기저기 재빨리 움직이게 하는 힘의 변화와 같이, 시장이 움직이게 하는 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심지어 교과서들이 변화에 관해 정말 이야기하는 곳에서조차 그것들은 전적으로 오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그래프는 만약 공급이나 수요가 변하면 시장이 새로운 균형 가격에서 새로운 수량들이 거래되는 어떤 새로운 균형점으로 즉시 회복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시장이 그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시장 움직임은 순간적이지도 않고 순탄하지도 않다. 실제로, 사람들이 부족이나 잉여를 알아차려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의 정보는 부정확할지 모른다. 그리고 새로운 공급 품들을 제조해서 그것들을 시장에 가지고 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컨대, 균형에 가까운 어떤 것이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다.

## 시장의 진정한 본질

그래서 시장은 결코 교과서의 ‘완전’ 모형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모두 다르다—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재정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도 많은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교환하는 재화는 어느 범위의 상이한 품질들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그것들이 거래되는 때와 장소의 면에서 독특하다. 얼마의 가격에 얼마나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균등하게 혹은 즉각적으로 퍼져 나가지 않는다. 기술과 선호는 바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에는 시간이 든다.

이러한 것들은 가정이나 입법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그저 ‘결함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시장의 바로 그 현실이며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현실은 확실히 지복(至福)의 가상적인 일반 균형 상태를 결코 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작동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이점들이 있고 충족하는 데 그 차이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이 항상 완전 균형 상태에 있다면, 누가 어떤 것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을 것이며, 경제생활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목표는 시장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것의 진정한 본질 안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제스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듯이 우리는 결코 시장이 교과서 모형의 완만한 곡선이 암시하는 만큼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각각 자기 자신의 특정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선택 전개에 잘 대처해야 하는 개인들의 별개의 선택들을 통해 적응한다. 그것은 결코 순조롭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번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단계들이 될 것이다.

## 수학이 부적합한 이유

이것 때문에 균형 이론가들이 수학을 자기들이 순조로운 적응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실수를 증대시킬 뿐이다. 그들은 결국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에 숫자를 부여하게 된다. 그들의 수학의 장식물은 마치 그들이 자연 과학자들이 다루는 종류의 함수 관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단지 자기들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상이한 사람들이 상이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의 시장 사건들에 대한 일단의 개인들의 반응이 내일의 사건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같지 않을지 모른다는 본질적인 점을 아무리 많은 통계도 극복할 수 없다고 미제스는 믿는다. 가치는 수학적 분석을 받을 수 없고, 통계의 사용은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그저 가릴 뿐이다. 경제적 사건에 관해—예를 들어, 신용 팽창이 호황을 야기하고 그 후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과 같은—광범위한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옳지만, 우리는 그 순환이 정확하게 얼마나 현저한지 혹은 얼마나 길지 결코 예측할 수 없다.

## 시장 과정

그렇다면 미제스에게는 경제학의 올바른 연구는 시장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힘들—각자 시장에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어떻게 잘 맞춰져서 그것들이 낳는 결과를 낳는지—에 관한 연구다. 바꿔 말하면,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포함하는 사건들에 조정하는 시장 **과정**(process)을 연구해야 한다.

시장을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균형이라는 교과서적 관념과 어긋난다. 탁구공을 공중에 유지하는 중력과 수압의 힘과 같이, 사물을 균형에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힘들**이 당연히 있다. 예를 들어, 부족이 있는 곳에서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 그 갭이 채워질 때까지 구매자들이 수요를 줄이고 판매자들이 더 공급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 **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며, 생산품과 생산 과정이 변한다. 시장은 사실상 결코 정지하지 않는다.

## 시간의 결정적 중요성

교과서는 그것을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시간**(time)은 시장 과정

의 결정적인 부분이다. 미제스는—초기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를 따라—모든 행동에는 시간이 든다고 지적한다.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건들이 그 행동을 바꾸고 어쩌면 좌절시킬 수도 있다. 사람들이 시장 변화를 발견하고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 동안, 사물들은 또 다시 변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새 공장을 건설하는 데 수 개월이나 수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소비자 기호가 그 공장의 제품을 외면할지 모르거나, 어떤 혁명적인 새 생산 과정이 그 공장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을 향한 순조롭고 즉각적인 적응이라는 교과서 관념은 시장 과정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중추적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없게 한다고 미제스는 결론 내린다. 그것은 또한 경제생활에서 지배적인 불확실성(uncertainty)도 우리가 볼 수 없게 한다. 교과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알려져 있고 확실하며, 시장은 예측 가능한 균형점으로 끌려간다. 현실에서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어떤 계획들은 성공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다른 것들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사물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하는 모든 움직임은 투기(speculation)—올바른 것으로 들어날지도 모르고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관한 추측에 토대를 둔 행동—이다. 교과서 모형들을 매우 그르게 만들고 투기와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현실 세계 경제학의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만드는 것은 이 점이다.

제6장  
기업가 정신



## 제6장 기업가 정신

‘완전 경쟁’이라는 교과서 세계에서는, **이윤(profit)**은 공급자들이 자신의 자본 비용, 노동 비용 그리고 유통 비용을 지불한 후 공급자들이 가지는 잔여일 뿐이다. 경쟁은 공급자들이 시장에 남도록 유혹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준—누구에게나 똑같은 ‘정상 수익’—까지로 이윤을 깎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가 자기들의 역량, 의욕 혹은 행운과 무관하게 똑같은 마진을 얻을 때는 혁신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이윤은 이것 훨씬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행동의 결정적인 동기 부여자다.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과 이윤의 진정한 본질과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10)</sup>

---

10) 기업가 정신과 이윤에 관한 논거들에 대해서는 *Human Action*을 보라.

## 기업가 정신과 이윤

어떤 상품이든 생산에는 그저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을 사용하여 그것이 발생시키는 ‘정상 수익’을 누리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이 수반된다. 현실적으로 생산에는 복잡한 선택들이 수반된다. 토지, 노동 그리고 장비 같은 보완적 생산 요소들이 모아져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 모든 것은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업의 추진자—기업가—는 최종 제품을 다양한 투입 요소들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에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사물들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투입 요소들의 비용이 도중에 올라갈지 모르고,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들을 얻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며, 새롭고 더 좋은 제품이나 공정이 개발될지 모르고, 유행이 변할지 모르며, 혹은 고객들이 사실상 생산자가 기대했던 값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생산은 투기다. 그것은 시장의 미래 상태를 알아맞히려는 시도다. 그것은 위험 감수를 수반하는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성공은 지식, 역량 그리고 행운의 혼합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윤이란 그저 어떤 무작위적 모험사업에든 사용되는 자본의 금액에 대한 수익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어떤 것에 관해 ‘이윤율’을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렵다.

미제스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나 **투기(speculation)**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이 상상하는 소수의 멋쟁이 옷을 입은 수완가 자본가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불가피한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추측이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미래 이윤을 낳는 데 자기의 자원과 역량을 사용하려고 하는—기업가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공장을 건설하는 사장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주식 중개인만큼이나 자신의 직업 전망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여 혼란 과정을 선택하는 근로자에게도 사실이다.<sup>11)</sup>

우리가 착수하기로 선택하는 모험사업들이 수지가 맞을지 여부를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드러날지 그저 추측해야 할 뿐이다. 이윤은—우리가 가진 어떠한 역량, 판단, 경험, 이해 그리고 내부 지식이든 사용해서—우리의 추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할 **동기**를 제공한다. 우리가 잘못 추측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기를 제공한다. 이윤은 죽은 사실이 아니다. 이윤은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생명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이윤은 만족한 고객들로부터의 보상이다

이윤은 그저 개인적 이득만이 아니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행동으로부터 얻는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

11)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미제스의 오스트리아학과 추종자, 이즈리얼 M. 커즈너의 저작에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오히려 이윤은 우리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에 기여한 것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요약한다. 그것은 오로지 만족한 고객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이윤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들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다시, 어느 기업가가 큰(‘정상을 넘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가가 큰 손해를 볼 때뿐이라고 교과서의 ‘정상 수익’ 모형들은 암시하는 것 같다. 이것으로부터 이윤이 ‘착취(exploitation)’—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것—라는 견해가 도출된다. 그러나 어떤 성공적인 사업의 보상이든 불가피하게 근로자들과 그리고 그 사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투입 요소들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공유된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리고 이윤이 생기는 유일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므로, 얻게 되는 이윤이 크면 클수록 일반적인 변영의 증가는 더욱 크다.

## 가격 결정 과정

어떤 기업가적 모험사업이든 그 성공은 미래 가격을 잘 예측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물들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은 쉽지 않다. 교과서는 시장이 어떤 교란 후에도 기지(既知)의 ‘균형 가격’으로 즉각 되돌아온다고 암시할지 모르나, 사실상 가격 적응은 눈사태와 더욱 닮았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어떤 변화든—말하자면, 새로운 광물 자원의 발견과 같은 것—처음에는 그것 가까

이에 있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차린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단지 몇 명만 그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상하며, 그것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재빠르게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도록 고무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차례차례 다른 사람들을 고무할 것이고, 등등, 시장 적응이 더욱 더 광범위하게 퍼지게 될 것이다.

적응의 확산 그 자체는 다른 눈사태—예를 들어, 새 광물 자원 발견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채굴 장비의 가격을 올리는 것—를 일으킬지 모른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 무관한 변화로 야기된 전혀 별도의 가격 눈사태도 역시 첫 번째 눈사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바꿔 말하면, 가격 적응은 즉각적이지도 기계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사회적** 과정—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교과서가 무시하는 바로 그것—개인 가치와 시간과 장소—에 달려 있다.

## 생산재의 가격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재화(경제학자들이 **소비재**라 부르는 것)의 시장 가격처럼, 생산재(우리가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와 자본 장비)의 가격도 역시 사람들의 가치들에서의 **차이**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덜 직접적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가 설명하기를, 생산재는 그 자체를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만드는 소비재를 위해서만 원한다. 따라서 그것은 그 소비재의 예상 가격에 따라 평가된다.

다시 한 번, 시장 과정은 가장 정확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한다. 미래 제품 가격에 관해 너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 생산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배제될 것이고, 토지, 장비 그리고 근로자들을 더욱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잃게 될 것이다. 반면, 그런 자산들에 대해 기꺼이 더 많이 지불하려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업가는 최종 제품이 판매될 때 손실을 입을 것이다. 오직 소비재의 미래 가격에 관해 정확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생산재의 가격을 소비재의 가격에 맞춘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겨 소비자 수요가 가장 강한 용도로 생산 자원을 돌리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필요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촉구한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모든 다른 것과 같이 사물을 움직이는 것은 관련 **특정 개인들의** 결정들이다. 기업가적 기능은 주류 경제학에서 대개 간과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건이 된다.

기업가들은 자기 자신의 이윤에 의해 움직일지 모르지만, 미제스는 그들이 소비자들의 **머슴**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변화의 세계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

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망보고 있어야 한다. 그 순 효과는 전 사회의 번영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는 경쟁이다.

제7장

## 경쟁, 협동 그리고 소비자



## 제7장 경쟁, 협동 그리고 소비자

‘완전 경쟁’이라는 교과서 모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가 하여간 ‘불완전’하다고—공급자들 간의 차이, 시장 진입에 대한 자연적 장벽 그리고 특히나 뭐든지 기업가들이 누리는 큰 이윤은 교정되어야 할 시장 ‘실패’를 나타낸다고—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제스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꼭 같은 세계에서는 경쟁이란 존재할 수조차 없다고 단언한다. 경쟁이란 공급자들이 서로 이기려고—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벌려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sup>12)</sup>

### 소비자 주권

경쟁은 기업가적 활동이 생산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곳으로 돌리는 과정을 향상시킨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

12) 이런 주제들은 미제스에 의해 *Human Action, Liberalism, Economic Policy* 그리고 *Planning for Freedom*과 같은 다양한 책들에서 개진되고 있다.

생산자들은 대중의 미래 수요를 예상하는 데 더 정확해야 하고, 대중에 봉사하는 데 더 독창적이어야 한다.

어느 활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은 선택의 과정이다. 그러나 미제스는 시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은 항상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가장 좋고 가장 값싼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재—와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생산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수요이다. 그리고 만약 더 좋거나 더 값싼 공급자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그들은 기꺼이 기존 공급자들을 포기하려 하는 다루기 힘든 상관이다.

시장은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나날의 주민 투표가 행해지는 것과 같다고 미제스는 결론 내린다. 무수한 나날의 거래들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한 푼 한 푼의 페니는 끊임없는 투표에서 한 표와 같이 작용하여, 어느 것이나 모두를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할지 결정하고 생산을 그것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자원 배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체제는 정치적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데, 후자에서는 사람들이 단지 몇 년마다 투표할 기회를 얻을 뿐이고 상반되는 정책들의 꾸러미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 ‘표’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평등한 선거가 아니라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사정을 다르게 본다. 첫째, 한 푼 한 푼의 페니가 실제로 **정말**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소수파가 정치적 선거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군다나,

수백만의 못사는 사람들의 그리 크지 않은 ‘표들’의 누적적 효과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표들을 쉽게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 능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로지 그들이 이전의 ‘투표들’에서 성공했고 자기들의 소비자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장 지배력은, 변변치 않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오고 오로지 소비자들이 만족한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 경쟁의 과정

그렇다면 미제스에게는 경쟁이란 소비자들이 매우 원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서로 이기려고 하는 끊임 없는 **과정**이다. 그것은 오로지 그 모형들이 ‘결합’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예를 들면, 판매자들이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상이한 품질들의 상이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제공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약간 더 좋거나 더 값싸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작동한다.

자연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는 사실—결국, 우리 모두가 오페라 가수가 될 수는 없다—은 경쟁을 조금도 덜 격심하게 하지 않는다. 공급자들이 방심하지 않게 하는 데는 더 좋거나 더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 한 두 경쟁자만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 경쟁이 격렬할수록 그것은 생산 개선과 소비자 만족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능에 더욱 잘 이바지한다.

다시, 비판자들은 경쟁이 부도덕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장 경쟁은 패배자가 살해되는 전쟁과 같지 않다. 시장에서 는 소비자들에게 덜 성공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저 보상을 덜 받을 뿐이다. 기업들은 때때로 정말 파산하고 사람들은 돈과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쟁으로 ‘죽는다(killed)’는 은유는 패배한 국민들이 승리자들에 의해 기층 소사를 당하는 현실과 동일한 반열에 있지 않다. 이윤은—심지어 큰 이윤도—불공정하지 않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오히려, 이윤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잘 봉사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 분업을 통한 협동

모든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기는커녕 시장 과정은 사실상 대규모로 인간 협동을 장려한다. 애덤 스미스가 처음 설명했듯이, 그것은 **전문화와 교환(specialization and exchange)**을 장려함으로써 이렇게 한다.<sup>13)</sup>

미제스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능력이 달라 다르다. 그들은 가까이에 상이한 자연 자원들이 있는 상이한 곳에서 산다. 생산을 별개의 전문가 단계들로 세분화하는 것

---

13)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Book I, 1776을 보라.

은 그들 모두가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다양한 능력들과 자원들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 제품들을 그 다음 교환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 중 어느 누구의 능력도 훨씬 넘을 사업 및 소비재의 창출에 협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화와 교환 체제에서 생산 자원은 불가피하게 특정인들에 의해 **소유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 소유자들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듯이 하여간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대립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자원이 소비 대중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만** 그것을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

### 자본주의는 독점을 초래하지 않는다

시장 경쟁에 가해지는 다른 비판은 그것이 사실상 독점 자본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덜 성공적인 기업들을 경쟁이 끊임없이 잘라냄에 따라, 남아 있는 기업들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드디어 각 부문에서 그저 하나의 독점 생산자만 남는다고 마르크스는 암시했다.

이것은 헛소리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큰 성공적인 기업들의 성공을 보기는 쉽지만, 우리는 유망한 기업들에 의해 대체되는—똑같이 큰—기업들의 쇠망을 늘 간과한다. 시장은 불가피한 집중의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부딪침과 변화의 과정이

다.

사람들이 독점에 관해 걱정하는 것은 지배적인 기업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격이든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어쩌면 더 작지만 더 혁신적인 기업들로부터, 항상 경쟁의 위협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도 회사들의 시장 지배는 항공 회사들의 대두로 깨졌다.

### 독점의 원천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상 독점은 모든 생산이 국가 수중에 있는 사회주의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독점의 진정한 원천은, 그리고 유해한 원천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다.

자기들의 소비자들에게 계속 봉사해야만 살아남는 상업 기업들과 달리, 정부들은—과거에 소금, 전화, 방송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에 대해 그렇게 했듯이—그저 자신들에게 독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은 **면허(licensing)**를 통해 일정 직업들에 대한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독점을 창출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당화 근거는—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공공 안전일지 모른다. 그러

나 너무나 자주 진정한 동기는 정치적이라고 미제스는 믿는다. 면허장은 당국에 상당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면허는—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 경쟁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을 억누르려는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과 정부가 없었더라면 카르텔과 독점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결론 내린다. 자본주의는 독점이나 독점 가격으로의 자연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는 다양성과 차별화를 향한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 모형들이 그것을 숨기지만, 그것은 경쟁 과정의 전체 요점이자 지속적인 편익이다.

제8장  
자본과 이자



## 제8장 자본과 이자

경제학에서 그 밖의 모든 것과 같이 **자본(capital)**과 **이자(interest)**는 개인들의 결정들—구체적으로 시간(time)의 가치에 관한 그들의 상이한 결정들—에서 튀어나온다.<sup>14)</sup>

### 인간 선택에서 시간의 중요성

우리의 목적들 가운데서 거의 어떤 것이든 달성하는 데 시간이 든다. 많은 단계들이 수반될지 모르고, 심지어 그 때는 우리가 달성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재를 생산하는 데 시간—미제스가 **생산 기간(period of produ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재는 한정된 시간—**제공 기간(period of provision)**—동안 지속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 착수하는 즉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려

---

14) 이것에 관한 주요 논의를 위해서는, *Human Action*과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을 보라.

고 하는 수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선호에 관해서도 선택에 직면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래 봉사할 고품품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덜 내구적이지만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가? 이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올바른 대답이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에서 본질적인 요소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높게 평가하여 자기들이 버는 모든 것을 소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희망컨대)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 지금의 만족을 희생하면서 저축하지만, 누구나 다 지금의 만족을 차후의 똑같은 만족보다 더 선호한다.

오늘 100달러어치 재화를 소비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즉각적인 소비를 만약 그 돈이 은행 계정에 저축되면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치를 가지게 될 대략 104달러보다 명백히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시간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면, 그들은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104달러를 가지는 것을 항상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정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개 인간들의 시간 선호들은 **이자(interest)**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미제스는 의미심장한 예를 제공한다. 당신은 개울에서 손으로 물고기를 훅 낚아챌으로써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당신은 그물과 카누로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만드는 데 시간이 든다. 당신은 이 장비를 만드는 작업

을 하고 있는 동안 굶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당신이 계속 나아가도록 물고기 비축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재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비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훨씬 더 풍부한 공급량을 얻기 위한 길이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이 손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도 잡기 시작할지 모른다. 그러나 차후의 그런 편익들이 바로 지금 굶는 비용의 가치가 있을지 여부는 당신의 개인적 선택일 것이다.

## 자본의 복합성

자본이란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것이고, 항상 그렇듯이, 인간 가치, 목적 그리고 선호가 그것에 긴밀하게 묶여 있다. 자본재들이 요약하는 핵심 사물은 **시간(time)**—차후의 더 큰 소비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자본재들이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그저 올바른 기술을 가지는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관련된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도 달려 있다. 당신은 카누와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지도 모르지만, 수반되는 시간과 희생을 고려할 때 그저 그것을 할 가치가 없을 뿐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자본재들은 생산의 유일한 목적인 소비로 가는 도정에서 중간 단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국가가 ‘자본(capital)’에 더 많이 쓸수록 그것이 더 생산적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생산성은 존재하는 자본재들의 특정 혼합에 달려 있다. 예

를 들면, 조선소, 제강소 그리고 탄광이 서로서로의 제품들에 전적으로 의존할지 모르지만, 어느 하나도 혼자만으로는 아주 쓸모없을지 모른다.

바뀌 말하면, 중요한 것은 자본재들에 대한 총 지출(total spending)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바뀌 말하면, 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이다. 그리고 이 자본 구조는 경제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된다. 자본재들은 모두 다르다. 망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많은 용도들에 사용될 수 있다. 도자기 거푸집과 같은 다른 것들은 단지 한 용도에만 유용하다. (말하자면, 유행의 변화 때문에) 만약 소비자 수요의 패턴이 변하면, 어떤 자본재들은 다시 사용되거나 새로운 용도들에 이바지하도록 조정될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폐기되어야 할지 모른다. 생산자들의 결정들은 부분적으로 자본재들이 새로운 용도들에 얼마나 전환 가능한지(convertible)에 달려 있을 것이다.

### 자본은 생각이지 사물이 아니다

우리는 자본이 그저 생각(idea)일 뿐 사물(thing)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크기’처럼, 그것이 단독으로, 우리가 크다거나 작다고 묘사하는 사물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다. 자본은 오직 자본재들로만 존재한다. ('소비'나 '국민 소득'과 같은 다른 경제 '총량들(aggregate)'과 같이 주류(및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자본' 사용은 매우 상이한 것들을 한 덩어리로 모은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모든 것—그 상이한 것들의 정확한 특징, 그것들의 구조, 그리고 행동하는 개인들에 대한 그것들의 의미—을 감춘다.

자본이 '자신을 재생산하'고 '이윤을 깎'다는 마르크스주의 미신에 이르는 것은 이 점에 관한 혼란 때문이다.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미세스는 말한다. 자본은 허공에서 자라지 않고, 오직 소비를 포기하고 자본재들을 창출하는 개인들의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자란다. 그것은 기업가가 미래 시장을 오판하는 때와 같이 실수를 통해 상실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용(bill)을 지불하거나 자기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 자산을 팔 때처럼 심지어 소비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정부가 경제적 의미가 없는 투자를 보조할 때처럼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자신을 재생산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낡은 생산 하부 구조를 부수고 그것을 더욱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한 국가의 산출물을 변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종 암시한다. 그러나 자본은 축적하는 데 시간과 수고가 든다. 그것은 저축되어야 하고, 그래서 모두 즉각 대체될 수 없다. 더군다나, 기존 자본 자산들을 대체하는 것은 그것들에 이미 투자된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항상 경제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

람들은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뛰쳐나가 자기들의 진공청소기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미제스는 언급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당국은 어떤 종류의 자본재들이 획득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반드시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자기들의 소비 선택을 통해 이것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아래서는 결정은 계획가들에 맡겨져야 하는데, 그들은 수백만의 이질적인 소비자들의 가치들을 측정할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이자 현상

**이자(interest)**는 자본만큼이나 복잡하고 인간적인 개념이다. **시장** 이자율은 대부자의 이윤, 어떤 채무자들이 부도날 경우의 보증금, 그리고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의 기본적인 요소—미제스가 **본래의 이자 (originary interest)**라고 부르는 것—는 사람들의 시간 선호를 요약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이 지금 100달러를 선호할까, 아니면 지금부터 1년 후 이를테면 104달러를 선호할까?

언제나 그렇듯이, 결정은 관련 개인들에 달려 있다. 자본은 자동적으로 이자를 생산하거나, 나무가 과일을 산출하듯이, 이자를 ‘산출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사실상 ‘자본’이라는 개념은 그저 추상적인 회계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는, 자본은 오직 자본재들로만 존

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재들이 이윤이나 소득을 낳는 것에 관해서는 자동적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자는 자본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긴다. 우리는 몇몇 이상주의자들이 암시하듯이 이자를 **폐지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폐지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래에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람들이 자본재들을 창출하고 그래서 인적 생산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희생을 하도록 유혹하는 유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자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개인 가치와 선택이다.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므로, 인간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시간 선호에 의해 형성된다. 이자율을 조절하려는(보통, 상한을 설정하려는) 정부 시도는 법의 힘을 통해 인간 감정의 상한을 설정하려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다. 이자율 상한 설정의 불가피한 효과는 저축과 투자에서 생기는 보상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낮은 저축, 더 적은 자본재들의 창출, 그리고 낮은 미래 생산성을 초래한다.

제9장

## 화폐와 인플레이션



## 제9장 화폐와 인플레이션

**화폐(money)**는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경제 거래는 그것에 의존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오로지 우리가 개인들에 대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그것의 경제적 역할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교환재로서의 화폐

화폐의 본질은 경제학자들에게 항상 수수께끼였다. 그것은 생산재가 아니다. 참으로, 기업가들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재들을 얻기 위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소비재도 아니다. 사람들은—아마도 소수의 병적인 수전노들을 예외로 하면—그저 그것의 기쁨을 위해 화폐를 가지지 않는다.

눈부신 한 편의 분석에서 미제스는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sup>15)</sup> 화

---

15) 이것에 관한 그의 논거들에 대해서는 특히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을 보라.

폐는, 비록 매우 특이한 경제재긴 하지만, 경제재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것의 목적은 생산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교환(exchange)**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재화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보기는 쉽다. 화폐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환으로 제공해야 하는 바로 그것을 즉각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느라 고심할 것이다. 배고픈 이발사는 이발을 필요로 하는 빵집 주인을 찾기 위해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라는 매개 수단을 통하여 이발사는 이발을 해주고 현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그 현금을 주고 미래의 어느 때든 어느 빵집 주인으로부터도 빵을 살 수 있다.

## 화폐의 공급, 수요 그리고 가격

다른 경제재들과 같이, 화폐는 희소하고 그것에 대한 **수요(demand)**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장하기를, 자기들이 미래에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재화와 그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중에 지니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경제재들과 같이, 화폐는 **가격(price)**—그것이 다른 것들과 사실상 정말 교환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가격은 다소 기이하게—그것의 한 단위와 교환될 재화의 양(1달러에 몇 개의

달걀)으로가 아니라 다른 재화와 교환되는 화폐 단위들의 수(달걀 하나에 몇 센트)로—표현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화폐의 ‘가격’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구매력(purchasing power)**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급과 수요의 힘에 근거한 어떤 다른 것과 같이 가격이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관련된 개인들의 가치들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미래 거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하기를 원하는지는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그들이 교환의 매개 수단인 화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재화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수요는 화폐의 가격, 즉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폐는 시장 바깥에 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화폐는 가격들의 어떤 불변의 표준이 아니다. 화폐는 사실상,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관련 개인들이 화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자기 자신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

**화폐 공급**도 수요 못지않게 복잡적이다. 상이한 화폐 종류들이 있다.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용도 외에 상업적 용도들도 가진, 금과 은 같은, **상품 화폐(commodity money)**가 있다. 은행들이 자기들의 준비금에 대해 발행하는 신용 어음과 같은, 미제스가 **신용 화폐(credit money)**라 부르는 것이 있다. 그리고 **법정 불환 화폐(fiat money)**, 즉 국가 정부에 의해 생산된 지폐와 주화가 있는데, 이것들은 더 이상 국고 준비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저 종이쪽지, 혹은 대용 주화(tokens)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보편적으로 수용된다.

사실상,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그저 **화폐 대용품** (money substitutes)일 뿐이다—빵 티켓이 빵에 대한 청구권이듯이, 단지 돈에 대한 청구권일 뿐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것들은 은행권과 즉시 접근(instant-access) 예금 계좌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매우 편리해서—우리가 금과 은 같은 교환 가능한 상품들을 들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진짜 화폐인 것처럼 그것들을 기꺼이 사용하고 교환한다.

공급과 수요의 이러한 복잡성들은, 그것들이 관련 개인들의 가치들에 의해 형성되므로, 다시 한 번 말해 지나치게 단순한 모형들이 아주 오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통화주의**(monetarism) 학설은 화폐 공급 증가가 화폐 구매력의 비례적인 하락을 야기한다고, 대부분의 다른 재화들과 같이, 그것이 주위에 많을 때 그 가격이 하락한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사실상 미제스는 이런 추론의 일반적인 타당성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상이한 화폐 종류들에 관해서나 그것들의 상이한 원천들(정부냐 은행이냐 거래자들 사이의 협정이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그들이 그것들과 그것들의 변경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이한 종류들의 화폐 및 화폐 대용품들의 공급에서—혹은 그것들의 상대적인 균형에서—변동들은 아주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낳을지 모른다.

## 화폐 가치의 훼손

참으로, 때때로 그 결과들은 파멸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빵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빵 티켓이 존재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듯이, 만약 화폐 대응품의 양이 너무 멀리까지 팽창되면(소위 **신용 발행(fiduciary)** 쟁점) 사람들은 이 지폐 청구권들이 인수될 것이라는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 그것은 예금 인출 사태나 국가의 통화의 붕괴를 일으킬지 모른다.

참으로, 그것들의 편리성이 무엇이건, 몇몇 형태들의 화폐나 화폐 대응품들이 쉽게 팽창될 수 있다는 것은 현저한 위험을 수반한다. 금이나 은 같은 **상품** 화폐의 공급은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하기야 새로운 발견이나 (향상된 채광 기법과 같은) 기술들이 그것을 증대시킬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때는 은행들이나 국가의 중앙은행이 붓을 눌러 사람들의 계좌에 예금을 즉시 증가시킬 수 있다.

널리 보급되어 있는 ‘부분 지급 준비(fractional reserve)’ 제도 아래서는 은행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법적 이거나 자율적으로 부과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 금고에 있는 준비금은 여전히 이런 방법을 통하여 몇 배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더욱 더 적은데, 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새 지폐를 찍거나 새 은행 예금을 창조할 수 있다. 화폐나 화폐 대응품들이 주위에 더 많으면 그것들의 가격

—즉, 그것들의 구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재화들의 가격 상승—흔히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불리는 것<sup>16)</sup>—으로 나타날 것이다.

### 화폐 팽창의 실제 결과들

단순한 통화주의 견해는 화폐나 신용의 급증이, 이러한 순수하게 ‘명목적인’ 물가 상승과는 별도로, 경제에 지속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그 효과가 실제적이라고—그리고 유해하다고—주장하면서 이것을 거부한다.

하나의 이유는 그러한 팽창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그것은 상이한 시점들에서 상이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퍼져나간다. 그것은 정부가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는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는데, 그로 인해 정부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공급자들은 이익을 얻을 첫 번째 사람들이 될 것이며, 판매가 늘어나 그들은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의 공급자들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근로자들과 공급자들은 이익을 얻을 다음 번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래서 호황은 한 부문

---

16) 미제스에게는 인플레이션이란 화폐나 신용 그 자체가 그것에 대한 수요를 넘어 과잉 팽창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용어를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데 사용한다.

에서 다른 부문으로 퍼져나간다. 미제스가 말하기를, 눈사태처럼, 가격과 임금이 오르고, 재료와 노동 같은 실물 자원이 한 부문에서 다음 부문으로, 그리고 또 다음 부문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여진다. 화폐 변화는 그저 '명목적인' 물가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실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실사 팽창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들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어떤 개인들은 그 증가분을 쓰기로 작정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저축하기로 작정할지 모른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그저 비례적으로 더 많이 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연히 사치품을 더 많이 살 것이고 낮은 품질의 생필품을 더 적게 살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팽창은 중립적이지 않고 소비와 생산의 유형에 실제적 효과를 끼칠 것이다.

호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눈사태처럼 퍼져나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것이다. 팽창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선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호황의 확산으로부터 어떠한 직접적인 편익도 얻기 오래 전에 광범위한 물가 상승의 효과를 겪을 것이다. 사람들의 이득이나 손실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격 눈사태를 예상하는가 하는 점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약간의 사람들은 가격 상승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그들은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점점 더 적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감지하고서, 자기들의 현금의 구매력이 더욱 더 떨어지기 전에 자기들의 현금을 쓰려고 뛰쳐나감으로써 이익을 볼지 모른다.

그렇지만 만약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금을 그것이 더욱 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쓰기 위해 돌진할 것이다. 소비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물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 사람들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통화를 열광적으로 쓰려고 시도함에 따라 드디어 전 화폐 체제가 그 압력으로 붕괴하여, 호황은 미세스가 **붕괴 호황(crack-up boom)**이라 부르는 것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 물론 그는 바로 그것을 1920년대 유럽에서 목격했었다.

## 화폐 정책의 목적들

그러한 호황과 불황의 위험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정부들이 그러한 팽창을 시작할 유혹이 항상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의 중심부에 있으므로 그들이 맨 먼저 이익을 얻고 그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팽창을 막기 위해 우리의 화폐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목표로 삼도록 정부

를 강제하는 것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물가 ‘수준’과 같은 것은 없다. 항상 상이한 가격들이 오르고 내린다. 당신은 가격 움직임들을 특정 재화 바구니에 근거한 **물가 지수(price index)**로 요약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확하게 무엇이 그 바구니에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그리고 결정자는 정치 당국일 것이다.

과거에 발권 은행들을 국가가 규제하고 지폐 발행에 대해 정부가 독점권을 가졌던 것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서 통제받지 않는 사기업보다 훨씬 덜 성공적이었다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당국의 첫째 임무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화폐 상품을 선호하든 그 선택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전혀 다른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건 정책은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상품 본위제?

만약 우리가 안전한 화폐 제도를 수립하려 한다면, 그것은 (금과 같은) 상품 본위제에 입각해야 할 것이고, 모든 미래의 지폐 발행들이나 은행 예금들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미제스는 결론 내린다. 그는 상품 본위제가 이상적이지 않음을 인정한다. 상품을 추출하고 저장하는 데 비용이 존재한다. 그것의 가치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전히 어떤 종류의 지폐 증서와 회계 제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 통화의 주요 이점은 그것이 정부와—혹은 더욱 구체적으로 결국 유해한 불황으로 전환되는 호황을 확실히 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는 정치가와—독립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미제스가 옹호했고 많은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옹호하는 금 본위제에 대한 지지가 별로 없다.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법정 불환 통화가 대체로 우리들에게 잘 봉사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장한다. 그래,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더 잘 이해되고 있고 그래서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간혹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것들 중 몇몇은 심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을 포기한 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법정 불환 통화가 세계 경제의 꽤 안전한 확대를 정말 돕고 있다고 널리 믿어지는 한, 미제스가 많은 사람들을 금 본위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오늘날 국가의 화폐 관리에 관해 말할 가치 있는 것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은행이 창조할 수 있는 새 화폐의 양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는—‘제한적 은행업(narrow banking; 보험사가 입출금과 자기앞수표 발행, 직불 카드 발행 등 아주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은행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대출 업무는 할 수 없다—윌킨이 주)’의 개념은 아주 미제스 덕분인데, 2007년까지 수년간 있었

던 거대한 은행 신용 팽창에 이어 나타났던 금융 대학살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정책은 일정 호소력을 정말 지니고 있다.

제10장

## 경기 순환의 비극



## 제10장 경기 순환의 비극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 활동이 성장 기간으로부터 불황 기간으로 순환적으로 방향을 바꾸는—소위 **경기 순환(business cycle)**—것 같은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왔다. 미제스 이전에도 초기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이 그 주제에 달려들었고, 그 주제에 관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공동 연구의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미제스의 동료 하이에크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미제스는 자신의 공헌에 대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공헌은 매우 중요했다. 특징적인 양식으로 미제스는 여러 주제들—화폐와 신용, 생산 과정, 가격과 이자율—을 호황과 불황의 포괄적인 이론으로 통합했다.<sup>17)</sup>

미제스는—정부 지폐, 주화 그리고 담보가 없는 은행권과 예금으로 이루어진 신용 수단(fiduciary media)을 포함하는—가장 광의의 화폐가 이 특정 해악의 뿌리라고 생각했다. 화폐 팽창은 상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왜곡을 야기한다. 화폐 팽창은 또한 새로운 자금이 대부 시장에 급증하게도 하는데, 이것은 시장 이자율을

---

17)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과 또한 *Human Action*도 보라.

낮춘다. 그 결과, 더 싸진 대부금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차입해서 새롭고 더욱 정교한 생산 과정을 형성하도록 조장한다. 그러나 호황이 완전히 쇠짐에 따라 이것은 모두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값싼 차입의 유혹

핵심 지표는 미세스가 **본래의 이자**(originary interest)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실제 시간 선호를 반영하는—앞에서 설명되었듯이, 그들이 100달러 가치의 소비를, 말하자면, 104달러로 바꾸기 위해 1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이자율이다. 만약 생산 과정이 이것과 같거나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 의미가 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만약 새로운 대부 자금의 급증으로 시장 이자율이 본래의 이자율 아래로 내려간다면, 사실상 사람들의 시간 선호로 정당화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 차입하는 것도 유리하게 된다. 기업가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새로운 생산 과정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경기 순환의 뿌리다.

## 경기 순환의 진행

처음에, 새로운 자금의 급증이 차입을 더 값싸게 함에 따라, 기업가들에게 모든 것이 전망이 있어 보인다. 더 값싼 차입으로, 새로운 생산 프로젝트들이 이제 더욱 이윤이 남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재료와 노동을 매입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자본 장비를 주문하기 위해 차입한다. 호황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 노동과 재료를 얻기 위한 기업가들 사이의 경쟁은 임금률과 생산재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근로자들의 더 높아진 임금은 소비재 가격도 올릴 것이다. 후자는 다시 기업가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들은 이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최종 제품에 대해 적어도 상당한 가격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진행하고, 호황은 계속된다.

그러나 비용 증가는 기업가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생산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이 차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기가 지금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자기는 틀림없이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다. 일단의 기초들을 너무 크게 하여 벽돌이 달리게 된 건설업자처럼, 자기들의 이전의 투자를 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계속 건설하기 위해 차입한다.

그러나 대부 자금의 급증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시장 이자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인데, 왜냐하면 기업가들의 대부금 수요가 이제는 이용 가능한 공급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의 예산이 억제될 것이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이 삭감

되거나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며, 호황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다. 호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속도적인 차입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 대부자들은 자기들이 한 대부의 안전성에 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대부를 억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억제는 그저 원래의 호황이 유지될 수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값싼 차입에 의해 이윤이 남는 것으로 만들어졌던 프로젝트들은 이제 손해인 것으로 드러난다.

화폐 안정성으로의 복귀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투자 실수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실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더욱 더 많이 차입할 수 없으므로, 기업들은 현금이 달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받고 자산을 팔아야 할 것이다. 공장이 폐쇄될 것이고, 건설 프로젝트들이 포기될 것이며, 근로자들이 해고될 것이다. 기업들은 자기의 대부금의 채무를 불이행할 것이며, 대부자들은 보상받기 위해 이자율을 더욱 더 올릴 것인데, 이것은 채무자들이 생존하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심지어 분별 있는 기업들조차도 신용 경색을 겪을 것이다. 도산이 늘어남에 따라, 하강 경향은 공황으로 떨어진다.

## 고통 없는 탈출은 없다

정치가들은 공황 그 자체가 재난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전부란 두려움 그 자체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

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선 강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제스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투자 실수의 효과가 스스로 해소되게 놔두는 것 외에는 전개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삽화적인 사건에 의해 자본이 파괴되었을 것이고 소비자들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을 것이다. 화폐와 신용 호황은 그것의 선동자들이 희망한 대로 소비자들을 부유하게 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빈곤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와 소득의 균형이 이동했을 것이다. 새로운 소비 권력 유형들이 발생했을 것이며, 새로운 가격 관계들이 학습되고 대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 수요 유형들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을 재형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가격 및 임금 하락의 비참한 하강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그 과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조정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예를 들면, 해고나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이나 정부에 의한 시도도—그저 고통을 연장하고 궁극적인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다. 슬픈 사실은 원래의 가공의 호황이 새로운 번영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속여 나쁜 투자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어떤 후속 노력도 그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 없고, 그것의 유해한 효과를 바꿀 수 없다.

## 오늘날의 미제스-하이에크 설명

그러나 전후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지배한 케인스학과 경제학자들은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제안한 경기 순환의 설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경기 하강이 과거 실수의 불가피한 유산이 아니라 추가적인 팽창이 필요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에 연료를 공급했다. 심지어 그 인플레이션을 굴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통화주의자들조차도 오스트리아학파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밀턴 프리드먼은 그것이 ‘증거에 어긋난다 (contradicted by the evidence)’고 결론 내렸으며, 그것이 ‘틀렸다 (false)’고 믿었다.

그러나 미제스-하이에크 견해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비(非)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에게는) 2007년에 처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금융 위기 후에 부활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같이 정말 보였기 때문이다. 10여 년 동안, 특히 영국과 미국의 화폐 당국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값싼 신용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이자율을 낮게 유지했는데, 그것을 1987년의 주식 시장 폭락, 러시아의 1998년 채무 불이행, 혹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2001년 9월의 테러리스트 공격과 같이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들 후에 하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보았다. 그들은 또한 세계 경제에 진입하는 수백만의 새로운 중국인 저축자들로 인해, 그저 공급과 수요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자율이 낮춰져

야 된다고 믿기도 했다. (물론 자유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자기 자신의 수준을 발견할 것이지만, 이러한 조작되는 시장에서는 당국이 신용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제3의 요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양의 값싼 재화들이 재화 가격을 낮추었고 당국에게 자기들이 화폐 공급을 과도하게 팽창시키고 있지 않다고 확신시켰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들은 화폐 공급을 과도하게 팽창시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값싼 신용이 막대한 수요 증대를 자극한 주택 시장에서 특히 분명하듯이, 거대한 호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항상 그렇다고 말했듯이, 결국 경색이 왔고, 지나간 해들의 투자 실수가 청산됨에 따라 많은 선진 국가들이 불황에 돌입했다. 그리고 미제스는—미증유의 규모로 돈을 찍어내고 빌림으로써 자신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하강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대응이 그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어지럽히며, 그러므로 궁극적인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볼 것이다.

제11장

## 사회주의의 문제들



## 제11장 사회주의의 문제들

양차 대전 사이의 유럽에서 사회주의는 멈출 수 없는 것 같았다. 많은 상이한 변형들이—국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그리고 계획 경제가 그것들에 속한다—제시되었다. 그러나 상표가 무엇이건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개념은, 미제스에 따르면, 조직된 공동체가 모든 생산 수단들을 배타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이다.<sup>18)</sup>

### 소비재와 생산재

그가 말하기를, 사회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에 집중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의 공동 소유라는 개념은 분명히 헛소리기 때문이다. 소유는 어떤 것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누가 집이 어떻게 사용될지 혹은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줄지 혹은 팔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

18) 이 견해는 그의 책 *Omnipotent Government*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그 논거들의 가장 포괄적인 진술은 *Socialism*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을 집의 **소유자**라고 부를 수 없다. 평등한 소유는 평등한 **통제**나 평등한 **사용**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재**(consumption goods)—음식, 의복, 자동차, 애완동물, 여송연, 손목시계와 같은 것—의 평등한 통제나 사용은 불가능하다. 상이한 사람들이 같은 옷을 동시에 입을 수는 없다. 두 아이가 판(板)초콜릿 한 개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상이한 부분들로 분할된 후에만 그렇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들조차도 그러한 재화들을 전달하는 데 시장 구조를 사용하고 그것들이 배타적인 용도로 사고 팔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지닌 비(非)집합적인 성질의 명백한 표시다.

그러나 **생산재**(production goods)는 아주 달라 보인다. 그것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즐거움에 오직 간접적으로만 이바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할할 필요 없이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예를 들면,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에 의해서와 같이—**공유될 수 있고, 참으로 공유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저 그러한 공동 소유를 더욱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는 문제일 뿐이지 않을까?

## 사회주의 계산 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현대의 생산 투자들은 대규모고 다양하며 통합되어 있다. 하여간 우리는 많은 가능한 과정

들 가운데서 어느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재생되며 대체되는지에 관해 끊임없는 흐름의 미래 선택들에 직면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장애는 우리가 그러한 복합적인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를 안내할 가격과 이윤이 없이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1900년대 초기까지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공급과 수요에 관한 많은 연립 방정식들을 푸는 문제로—보게 되었다. 그러나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산 문제** (socialist calculation problem)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관리되어야 할 거대한 범위의 재화들이—물리적인 공장과 장비뿐만 아니라 상이한 생산 과정들을 거치는 반가공품들도—있었다. 그리고 노동도 할당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 대단히 복합적인 체제의 모든 시점에서 결정들은 그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상이한 재화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가들은 인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가치는 본래적으로 개인적이다. 사람들은 가치들에 관해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계획가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더욱 더 깊어진다. 가치 있는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말하자면 전기의 편익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은 석탄을 채굴하여 생산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여

생산해야 할까? 우리가 어느 과정으로 낙착하건 그것은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을 시간, 토지, 노동 그리고 기타 자원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택하는 모든 생산 결정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여간 선택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새로운 탄광이나 댐으로부터 나오는 전력보다 평온한 들판이나 폭포를 더욱 더 높이 평가할지 모른다.

### 회계 단위의 필요성

만약 우리가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들 사이와 그것들의 사용으로부터 나타나는 상이한 제품들 사이에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 구조가 더 복잡해질수록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이한 과정들과 제품들의 선택은 더 넓어진다. 그리고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수가 더 클수록 더 많은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건설한지 건설하지 않은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회계 단위를 필요로 한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러나 상이한 사물들에 관해 상이한 사람들 자신의 평가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없다.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비탄, 고통 혹은 행복이 비교될 수 없는 것과 같다.

## 화폐에 의한 계산

자유 경제에서는—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우리가 사람들의 가치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것과 다른 것 사이에서 내리는 **실제** 선택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기꺼이 포기하려 하는지—우리가 **가격(prices)**이라고 부르는 상이한 재화들 사이의 교환 비율—측정할 수 있다.

시장 가격은 특정 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선호들의 요약이다. 그리고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와 중간재에 대한 시장 가격도 있다. 가격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는 모든 상이한 경제적 선택들을 **화폐(money)**라는 공통 단위로 환원할 수 있다.

물론 화폐는 당신에게 사랑이나 덕이나 성실성을 사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어느 것을 얼마나 많이 줄지를 정말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능성들의 미로를 통과하는 데 간단한 길잡이가 된다.

1000리터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500리터의 석유를 생산하는 것이 더 좋은가? 가격이 없이는, 우리가 어느 것을 생산해야 할지 계산하기 위한 공통 기초가 없고, 사회주의 계획가의 연립 방정식들에 입력할 자료가 없다. 선택은 어느 정치가나 관리의 결정으로 전락할 것이다. 가격을 포기하므로 불가피하게 전체 공동체의 선택들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단일 개인이나 집단의

변덕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역설이다.

### 가격이 없는 생산재

사회주의자들은 현실 세계 사회주의 경제들이 사실상 화폐의 사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른다. 근로자들이 여전히 화폐로 급료를 받고, 소비재들이 여전히 현금으로 사고 팔린다. 그래서 회계 단위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아래서 생산재들은 공동 소유로 보유된다. 그것들은 결코 거래되지도 않고, 결코 사고 팔리지도 않으며, 국가의 공동 소유로서 존속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 설사 사회주의 경제에서 다른 곳에서는 돈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생산 결정에서는 역할이 거부된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이러한 결점은 자본재들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관련된 모든 재화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순간에서든 수천의 생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 단지 몇 개만이 완성 소비재들을 생산할 것이고, 대부분은 자본재들과 반제품들을 생산할 것이다. (카를 멩거가 말하듯이, 모든 조각의 빵은 밀가루, 곡물, 쟁기 날 그리고 철광석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백만의 중간재 제품들의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관리자들과 그것들에 대한 더 많은 작업이 정당화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정당화된다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 없이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생산하느라 부담했던 비용이나 미래의 가능한 생산 단계들의 비용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전체 경제는 가격 정보의 결여로 약화된다.

### 인간 두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계산

자본주의 공동체와 사회주의 공동체 다 같이 그 목적은 자기들의 국민들의 가장 긴급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실제 선택들에 근거한 계산 단위—가격—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아래서는 그 과정은 훨씬 덜 직접적이다. 공중의 욕구들이 무엇인지, 어느 것들이 가장 긴급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이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계획가도 사람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고, 어떠한 양의 기술이나 수학도 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기술과 계산은 우리에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달성하도록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말해 줄 수 있을 때라도, 어떤 인간도 그러한 복합적인 생산 문제들을 결코 풀 수 없다.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어야 할까? 최

상의 노선은 무엇일까? 그 비용은 운송 편익과 환경 편익의 가치가 있을까?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의 어떤 혼합이 최적일까? 연료, 철 그리고 장비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들에 더 잘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화폐, 가격 그리고 이윤이 없이는, 생산 가능성들의 대다수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인간 두뇌는 대처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계획가에게 사정은 더욱 더 나쁜데, 왜냐하면 계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바뀐다는 점과 정보가 수집되어 계획 중추에 전달되었을 때쯤이면 정보가 아마도 이미 낡았을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다. 장애는 그것보다 더욱 근본적이다. (미제스의 연구에 근거하여) 하이에크가 말하듯이, 시장 현실과 가격 움직임과 수요에 관한 정보는 불가피하게 국지적이고 경제 전체에 걸쳐 **분산되어**(dispersed) 있다. 그것은 또한 본래적으로 **주관적**(subjective)이다. 상이한 사람들은 그림의 상이한 부분들만 본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는 결국 암묵적 이해, 본능과 경험, 실제로—중앙 계획가와 같은—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들로 요약될지 모른다. 설사 계획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산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동하고 있을 정보는 불완전할 것이고 낡았을 것이며 종종 모순적일 것이다.

## 시장 사회주의

미제스가 제기한 계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은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였다. 오스카 랑게(Oscar Lange)와 아바 러너(Abba Lerner) 같은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은 가격이 행정가들에 의해 설정되는 ‘이상적인’ 시장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러너는 관리자들에 안내하는 단순한 규칙들—예를 들면, 그들은 판매되는 재화의 가격이 그것의 생산 비용과 일치하는 산출물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생산적 노력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을 제안했다.

미제스는 이 개념이 너무나 정태적이고 이론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복잡적이고 변화하며 다양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적응하는 현실 세계 과정들에서는 완전(perfection)과 균형(balance)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생산 선택들은 결코 단순한 규칙들에 의해 요약되거나 지도될 수 없다.

랑게는 발생하는 어떤 잉여나 부족에도 대응하여 가격들이 조정될 수 있고 관리자들이 그에 따라 산출물을 조정하도록 명령 받는다는 견해를 취했다. 그러나 미제스는 이것이 진정한 시장 경제에 대한 매우 빈약한 대체물임에 틀림없다고 비평하는데, 진정한 시장 경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업가들이 공급과 수요의 심지어 아주 작은 변화에도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고 내일 일어날 변화를 예상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 사회주의는 항상 현실 시장 경제보다 한 걸음 늦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든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그것이 가격 관계를 모방할 수 있는 현실 시장 경제가 주위에 있다는 점뿐이다.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 걸쳐 보급하려는 꿈은 자멸적일 것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것은 합리적 경제 계산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제12장

## 마르크스주의의 결함들



## 제12장    마르크스주의의 결함들

미제스에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 실수는 주류 경제학의 핵심적 실수와 꼭 같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사건들이 개인들의 가치들과 행동들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육체로부터 이탈한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sup>19)</sup>

하나의 예가 경제와 사회의 ‘단계(stages)’에 관한 마르크스의 묘사다. 그는 상이한 기술이 상이한 종류의 사회 질서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농업 시대는 봉건제를 낳았고, 산업 시대는 똑같이 억압적인 자본주의를 낳았다. 그리고 불가피한 자본주의 타도는 마침내 인간을 해방하는 사회주의를 낳을 것이다.

미제스는 기술적 혁신이—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예술적 및 지적 활동을 위한 시간과 부를 주어—참으로 인간 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가 오로지 지배적인 생산 기술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말하는

---

19)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Human Action, Socialism, Theory and History* 그리고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를 포함하는 여러 책에 전개되어 있다.

것은 아니다. 참으로 보통 그것은 반대 방향이다. 자본재들이 축적 될 수 있기 전에 재산과 안전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들과 제도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하고, 복잡한 생산 기술의 사용은 전문화와 교환을 통한 협동을 필요로 한다. 바꿔 말하면, 사회관계가 필연적으로 우선한다.

###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동일한 실수는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독살함에 틀림 없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침투해 있다. 마르크스는 설명한다. 격렬한 경쟁에 살아남고 자기들 자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부유한 실업가들은 자기들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속해서 강제로 인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고객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동시에, 똑같은 죽기 살기 경쟁으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삭감함에 따라 기업들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에는 경쟁이 독점으로 대체된다.

기업들은 오직 자기들의 고객들에 봉사함으로써만 생존하고 대기업의 전 목적은 대중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마르크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고 미제스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 주권적 소비자들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든 재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대중을 빈곤으로 집어넣기는 커녕 자본

주의는 항상 그들에게 물질적 개선을 가져왔다. 마르크스는 그의 마음이 악의적 계급주의의 편견을 가지게 되어 그저 목적들의 이러한 조화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다.

## 이념과 계급

그러나 계급주의(classism)는 마르크스에게 필수 불가결했다. 그는 그저 비판자들을 마음이 폐쇄적이고 적의를 품고 있는 이기적(self-promoting) 계급의 구성원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모든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오직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진정한 계몽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헛소리라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설사 ‘부르주아(bourgeois)’ 경제학이 오로지 봉건제의 토대를 침식하고 자본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만 고안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그것을 **그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은 이데올로기상으로 시야가 좁은 견해보다는 **옳은** 견해를 채택함으로써 여전히 더 도움을 얻을 것이다.

하여간 사상이 변함없이 집단 충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 자신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명백히 중산 계급이었고 그의 후원자 엥겔스는 실업가였다. 그리고 계급 이익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 자유 무역은 집단으로서의 자본가들에게 편익을 줄지 모르지만, 개별 자본가들은 여전히 자기들 자신의 특정 부문

에서 수입 통제를 얻기 위해 운동할지 모른다. 동시에, 어떤 프롤레타리아들은 사적인 생산 소유가 사회주의 아래서의 공동 소유보다 자기들의 계급에 더 잘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바보들이나 계급 배신자들만이 어찌면 그러한 견해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결론 내렸을 때 그 문제에 관해 합리적 토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

## 마르크스주의와 고전학과 경제학

주류 경제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경제학을 개인들의 행동들과 가치들보다 비(非)개인적 힘들의 상호 작용으로 취급하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자본주의가 독점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마르크스의 견해가 적절한 예이다. 주류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 모형은, 그것의 동일한 제품들 및 거래자들과 더불어, 기괴한 과도 단순화이다. 그러나 그것을 대규모 생산이 항상 더 값이 싸다는 상식적 견해와 혼합해 보라, 그러면 그것은 기업들이 계속 커져서 경쟁을 몰아냄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아주 가까워진다. 어떤 제품들이나 거래자들도 동일하지 않다. 제품의 품질, 가격 그리고 위치에 엄청나게 많은 등급들이 있고,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존재하는 만큼이나 많은 상이한 선호들이 있다. 그로 인해 소규모 전문 기업들이 틈새시장을 이

용하여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 혁신자들은 심지어 가장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기업의 시장조차도 재빨리 감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독점 쪽으로 몰아가는 비개인적인 ‘힘’도 없고 그것을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것에 관해서 불가피한 것도 없다. 경제와 정치는 행동들이 그렇게 쉽게 예측될 수 없는 개별 인간들의 선택들에 뿌리를 박고 있다. 다른 식으로 믿는 것은 위험한 자만이다.

## 사회주의 아래서의 자유의 침식

만약 사회주의가 생산 자원들이 사회에 의해 소유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사회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는가? 다시 한 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 요소를 간과한다고 미제스는 주장한다. 그들은 마치 ‘사회(society)’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진 생물인 것처럼 ‘사회의 단일 의지(unitary will of society)’에 관해 말주변 좋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가 실제로 이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결코 규정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즉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통제(control) 기관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불쾌한 진실이 있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심지어 헌신적인 사회주의자들조차도 무엇이 행해져야 하고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관해 논쟁할 것이다. 참으로, 그 논쟁들은 특히 심각할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사

회 조직 그 자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결정되는 것이 무엇이건 약간의 사람들은 맹렬하게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책임 회피자들과 자기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집합적 결정을 모멸하는 다른 사람들과 보태어져—하여간 정렬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의 ‘단일 의지’와 ‘국가의 소멸’을 찬양할지 모르지만, 첫째의 부존재는 둘째를 몽상으로 만든다. 공통 목적으로부터 어떤 이탈이든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어떤 최고 권위—바꿔 말하면, **국가(state)**—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그것이 완전한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만약 다수파의 의지가 지배하려면, 이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명령은 발해져서 준수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과 직장의 선택도 양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권력이 최고 당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다른 개인적 자유들이 동일한 길을 갈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제13장

## 개입주의와 관료제



## 제13장 개입주의와 관료제

그렇다면 미제스에게 사회주의—물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생산 수단의 공공 소유—는 실제 작동할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일관성 있는 이론적 토대도 결여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미제스가 경제 계산 문제에 관해 얼마나 옳았는가를 확실히 드러내었다. 소비에트 블록의 자원들이 대단히 잘못 배분되었다는 것은 어떤 서구인에게도 분명했다. 바로 기본적인 인간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을 때, 공장은 시장으로부터 여러 마일 떨어져 있었고, 기계는 대단히 과도 제작되었으며, 금속들과 기타 상품들은 낭비되고 있었다. 막대한 구조 개혁이 불가피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할 때, 오늘날 자기를 사회주의자로 지칭하는 사람으로서 대규모 국가 소유의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시장의 에너지와 규율이 전체 공동체의 복지—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를 증진하고 극대화하도록 돌려질 수 있게 민간 산업이 크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사회주의에 관한 그의 논거들이 이제는 쫓겨난 지

오래 된 표적을 목표로 삼았지만, 미제스는 왜 이런 식의 접근법이 만개한 사회주의만큼이나 일관성 없고 비실제적인지를 설명하는 많은 논거들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 놓았다. 자기가 **개입주의** (interventionism)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그는 현대 ‘제3의 길(third way)’ 사고에 대한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비판을 우리들에게 제공한다.

##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본주의에 대해 적대적일까? 부분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개별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미제스는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돈 ‘표(votes)’는 자기들에게 가장 많은 만족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자신의 자존감에 관한 견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나무의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시장 체제에서 항상 혹은 자동적으로 잘 보상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봉급이 많은 미숙련 근로자들의 것보다 적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그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렇지만 시장의 면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정당화될지 모른다. 사람들은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천한 일들을 싫어하고, 그것들을 하는데는 당연히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장 체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의 만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특정 집단이나 심지어 특정 미덕과 가치를 장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집단이든 얼마나 많은 분개를 느낄지 몰라도, 그들의 임금은 실업이라는 더 나쁜 해악을 야기하지 않고는 시장 수준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이상적인 세계가 어떤 모습일까에 관한 우리의 꿈은 경제 과학의 논리를 바꿀 수 없다.

### 자본주의를 개선하려는 과도된 노력

참으로, 시장 경제를 조절해서 그것을 특정 비전에 부합하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함없이 유해하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전문화하도록 그리고 인간 노력의 생산성을 올리는 자본재들을 축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일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체제를 혹사하거나 규제하고, 자본재들을 투자하고 소유하는 것을 덜 가치 있게 할 때, 자본주의는 비틀거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고 미제스는 설명한다. 그것은 개입주의의 위기, 자본주의를 ‘개선할’ 작정이나 사실상 그것을 질식시키는 정책들의 실패다.<sup>20)</sup>

예를 들어, 하나의 혼란 정치적 이상은 ‘경제 민주주의(economic

---

20) 이 장에서 개설된 완전한 논거들에 대해서는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Socialism* 그리고 *Bureaucracy*를 보라.

democracy)’—단지 소수의 자본가 생산자들(capitalist producers)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가 경제재의 생산과 배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미제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경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들은 필연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망에 의해 지배된다. 만약 그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거래를 잃고 도산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중 선택에 간섭한다면, 우리는 결국 오직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의제(agenda)만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 신중한 관념은 생산자들의 이윤이 전 주민에 걸쳐 더욱 광범위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의 보상은 같이 나누면서 전 실패 비용은 기업에 부담 지운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사업 위험 수용 의사를 약화시킬 수 있을 뿐인 불균형이고 그리하여 경제생활 자체를 불황으로 몰아넣음에 틀림없는 불균형이다.

### 사적 소유 없이 진보 없다

명심할 중요한 것은 부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산적인 자본재들을 축적하기 위하여 저축하고 소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창출된다. 자본은 축적하는 데 노력이 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이 그것의 보상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미 축적된 자본은 아주 쉽게 파괴되고 소진되며 낭비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자본을 창출하고 향유할 유인을 줄인다면, 우리는 더욱 공정하거나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가난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재산의 존중은 미제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그저 자원들을 **배분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자원들을 사실상 **창출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수준이 아주 대단히 그리고 아주 빨리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의 소유와 향유를 보호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이다.

## 개입주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회주의로까지 치달지 않고도 자본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들은 복잡하다. 한 지점에서 그것들에 개입하면 다른 지점에서 부차적 효과—종종 매우 환영받지 못하는 부차적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사업에 지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지 모른다. 만약 그 돈이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창출하는 것만큼 많은 일자리를 파괴한다. 만약 그것이 차입으로부터 나온

다면, 그것은—역시 일자리를 파괴하는—신용 팽창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래서 당국은 자신들이 이 새로운 문제들의 교정을 시도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개입들에 끌려들어가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은 반복된다. 결국, 경제가 여전히 자본주의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당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 되는 결과가 된다.

### 가격 및 임금 통제

흔한 개입주의 형태는 당국이 ‘너무 비싸다’고 여기는 필수품에 대한 **가격 통제(price controls)**다. 미제스는 가난한 가게들이 우유를 더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유에 대해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정부 명령의 예를 든다. 불행하게도, 낮아진 가격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유를 사게 장려하지만, 그것은 우유 생산을 덜 매력적이게 한다. 어떤 생산자들은 심지어 돈을 잃고 사업을 접기 시작할지 모른다. 수요가 높아지고 생산이 감소하여, 널리 돌아갈 만큼 충분한 우유가 없을 것이다. 이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적은 우유를 얻을지 모른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빈곤한 집단들이 자기들의 몫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유를 배급하는 것을 시험할지 모른다. 아니면 정부는 [낙농] 농부의 비용을 낮출 것을 기대하면서 가축 사료의 가격

에 제한을 설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사료 생산이 우유 생산과 같은 길을 간다. 아니면 전 배급 관료제가 창설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그저 하나의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거대한 규제 구조에 이르게 된다.

근로 빈곤층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다른 흔한 개입은 최저 임금률(minimum wage rates)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임금은 기업들의 비용을 올린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소비자들에 대해 자기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해야 할 것이다—후자는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고 그래서 해고도 촉진할 것이다. 최저 임금들이 더 높고 더 광범위할수록, 그것들이 야기하는 실업은 더 넓고 더 깊어진다.

다시 한 번, 정부는 개입할 압력을 받을 것인데, 아마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칙들이나 사회 보장 수당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저 기업들에 더욱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할 뿐이고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킨다.

## 관료제

자본주의가 개입주의나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하나의 이유는 기업이—이윤을 번다는—하나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 단일의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보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 기업의 목적들은 훨씬 더 분산되어 있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혹은 ‘필수적인’ 혹은 ‘바람직한’ 일단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그것이 이 모호한 목표들을 달성하거나 균형 잡는 데 성공한 정도를 측정할 명백한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찰대의 산물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상이한 관심들을 가진 상이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아주 상이한 방식들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기관이 돈에 비해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혹은 직원이 과잉인지 여부는? 혹은 심지어 필요한지 여부는?

일어나는 일은, 산물들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관 관리자들이 대신 자기들의 행동과 지출에 대한 규칙들의 덧옷(overlay)에 의해 통제되게 된다는 점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할 수 있기 전에 고위 당국에 문의해 보아야 하는 그저 관료들이 될 뿐이다.

### 효과들과 해결책 결어

명백히, 이로 인해 공공 기관들은 민간 기업들보다 훨씬 덜 신축적이게 된다. 시장에서는 단일 개인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고, 품질을 올리고 비용을 삭감하는 새로운 공정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기관 관리자들은 재량이 한정되어 있다. 불가피하게 그들은 변화하는 기술들과 사건들에 뒤처진다.

심지어 그들의 직원 고용조차 덜 효율적이고 일반 대중의 욕구에 덜 집중되어 있다. 경쟁적인 시장 세계에서 기업가들은—그저 자기들이 우연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자기들의 고객들을 위해 일을 가장 잘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관료적 경력은 상관의 개인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고 밀어주기(patronage)가 만연하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그것들은 공공 단체에 부과된 목적들의 모호함에서 생긴다.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기업가적으로(entrepreneurially)’ 행동하도록 간청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 상업 기업의 목표와 관료제의 목표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것들은 상이한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고 상이한 관리 방식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기업으로부터 관리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회계 및 관리 역량은 그런 과업에는 그저 부적합할 뿐이다. 국가 제도들이 시장이 하는 것을 취해서 하여간 그것을 더 잘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명백히 위험한 자만이다.

제14장

## 자유주의적 대안



## 제14장 자유주의적 대안

양차 대전 사이의 유럽에 살았으므로, 미제스는 민족주의(nationalism)가 끼친 몇몇 최악의 효과들을 보았고, 민족주의를 증오했다. 민족주의의 뿌리들 중 하나는 개입주의이고 개입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통제와 이민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올리거나 이윤을 올리려는 조치들은 만약 값싼 노동과 재화가 해외로부터 물밀듯 들어올 수 있다면 그 토대가 침식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장벽들이 외부인들의 적대감을 조장하고, 긴장을 증가시키며, 종종 갈등을 불붙인다고 그는 주장한다.<sup>21)</sup>

그러나 자본주의는 국가에 훨씬 더 작은 역할을 부여하고, 보호주의가 아니라 무역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도록 요구한다. 참으로, 미제스는 (비록 그 논거가 그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일수록 무역이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들이 서로서로 무역에 상호 의존할 때 전쟁은 생각

---

21) 이것의 설명에 대해서는 특히 *Nation, State, and Economy*를 보라.

할 수 없게 된다.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자유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결론 내린다.

무역 당사국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미제스의 설명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았다. 참으로, 이것은 어떤 갈등 유형보다 더 흔하다. 그러나 어떤 국가든 개개 국민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무역 상대방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잘 충족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아마도 외관상 모순은 그저 미제스가 종종 행한 다른 주장—정치가들의 이익이 일반 대중의 이익과 종종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의 실례가 될 뿐이다.

## 자유주의의 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질서로서 자유주의(liberalism)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그것이 **작동된다는** 점이라고 미제스는 말한다.<sup>22)</sup> 그것은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억제하고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협동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위대한 19세기 자유주의 및 탈규제 시대는 증가하는 인구의 바로 전체에 걸쳐 퍼져나간 생산성 급증과 생활수준 상승을 낳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의 가장 큰 편익—장기적으로 더 많은 상업 자유를 통해 전 주민이

---

22) 자유주의 접근법에 대한 완전한 옹호는 *Liberalism*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Economic Policy*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유해지는 것—은 개입으로부터 나타나는 즉각적인 이득보다 사람들에게 덜 분명하다. 자유주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특권을 얻어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것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또한 특정 사회 구조나 특정 소득 분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평화, 안정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의 틀(framework)을 수립할 뿐이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협동한다. 자유주의는 무엇이 생산되어야 한다거나, 얼마나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거나, 누구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복합적이고 자발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미제스는 자유주의 틀이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에 평화롭고 효율적인 협동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아래서는 우리의 차이점들은 잠재적인 갈등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인 거래 기회이다. 사람들이 어떤 것의 가치에 관해 더 많이 의견이 갈릴수록, 그들 각자는 그것을 교환함으로써 더 많이 이득을 얻는다. 그리고 교환은 우리가 전문화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상이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그래서 어떤 단일 개인의 능력도 넘을 것들을 창조하는 과제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 자유주의 질서의 토대

미제스에게 자유주의 국가의 역할은 개인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동의 영역을 극대화하고 강제의 필요를 극소화하면서, 개인들이 협동할 수 있게 하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틀을 유지하는 데는 평화, 자유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평화(peace)**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새로운 생산 과정에 대한 투자와 같은 경제 행동은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가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쟁 상태는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만약 적군에 의해 자기들의 작물이 파괴되거나 자기들의 토지가 몰수될 큰 위험이 있다면, 농부들은 확신을 가지고 작물을 심을 수 없다.

**자유(freedom)**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명령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인 경제 선택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건 자기들 자신의 의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되는 노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생산적이다.

전문화와 거래의 체계가 번창하려면, **소유권(property)**이 필수적이다. 만약 사람들이 저축하고 자본재들에 투자하려면, 그들은 자기들의 투자가 안전하다는 것과 자기들이 그 노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자유주의의 편익

자유주의가 사적 소유 제도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부자들과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암시할지 모른다. 미제스는 이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에게 사적 소유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전문화가 달성할 수 있는 더 높아진 생활수준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아래서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정말 추구한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유주의가 창출하는 생활수준의 일반적인 상승으로부터, 그리고 특권과 통제가 종식될 때 열리는 기회로부터 여전히 편익을 얻을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서 주권을 가진 것은 부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들 대다수다.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제품을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제품을 받아들인다. 자본주의 시대가 대량 생산의 시대였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것은 제법 좋은 음식, 옷 그리고 집에 대한 접근을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게 했다. 심지어 자동차와 텔레비전 같은 사치품들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주의의 현실은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 생활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측과 현저하게 대조된다.

자유주의는 다른 중요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힘을 준다. 그것은 그들에게 계획 능력을 준다. 계획이란 중앙 당국에 국한된 어떤 것

이 아니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우리 모두는 계획한다. 선택은 계획과 무계획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지배하느냐에 관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직 **개인들**만이 자기 자신의 욕구, 목적 그리고 가치를 알 수 있으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에서는 특히, 개인들에게 스스로 계획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미제스는 생각한다.

## 자유주의와 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소득 평등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약간의 비판자들은 결국 가난해지게 되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해 걱정하게 된다. 미제스는 이러한 두려움이 잘못 놓인 것이라고 간주한다. 오늘날의 선진 경제의 근로 빈곤층은—만약 그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토지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야 하는 자본주의 이전 사회들의 근로 빈곤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산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적어도 약간의 보상을 가져오는 생산적 틈새 (productive niche)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과 자선 단체가 부양할 수 있다. 비판자들은 자선 단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선 단체의 가장 큰 급증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일어났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생활수준 상승과 더불어, 자선 행위를 위해 할애할 부가 더 많아지고, 근소한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보험으로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자본을 먹어 없애고 자선 기관들을 더 가난하게 남겨두는 것은 **개입주의다**—이것은 물론 복지 지원의 형태로 더 많은 개입에 대한 나선상 요구를 초래한다.

비판자들은 자유주의 아래서의 불평등의 본질을 오해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 세계에서의 불평등과 전혀 다르다. 시장 사회에서 부는 특권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들을 이롭게 함으로써만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생산자들이 그런 편익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동안만 지속된다.

더군다나,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품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구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경제는 동태적이다. 모든 혁신들—자동차, 하수 설비, 전기—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으로서 시작되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수품’이 된다고 미제스는 말한다.

그러나 그 때는 모든 인간의 복리의 그 지속적인 상승은 확실히 경제 정책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경제 과학의 진정한 본질과 궁극적인 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15장

루트비히 폰 미제스로부터의

인용문들



제15장 루트비히 폰 미제스로부터의 인용문들

사회주의의 문제들에 관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은 이것이다. 모든 생산 수단은 조직된 공동체의 배타적 통제에 속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만이, 사회주의다. 모든 다른 정의들은 잘못된 것이다.

*Socialism*, p. 239

먼 과거의 단순 생산 기간의 경험은 화폐 계산 없는 경제 체제의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어떠한 종류의 옹호 논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p. 103

자본주의가 시장 가격의 형태로 사회주의의 처분에 맡기는 계산의 기초가 없이는, 사회주의 사업들은 심지어 단일 생산 분야나 개개 국가 안에서도 결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Socialism*, p. 136

모든 경제 변화는... 가치가 미리 예측될 수도 없고 발생한 후 확인될 수도 없는 활동들을 수반한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의 땀질이다. 사회주의는 합리적 경제의 폐기다.

*Socialism*, p. 122

인간의 두뇌는 당혹할 정도로 많은 제품들과 생산 가능성들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것은 그저 당황한 채 서 있을 뿐이다...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p. 103

사회주의에 관한 많은 통속적인 오류들은 사회주의의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체제를 옹호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 혹은 계획을 말할 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의 사회주의 상표, 자기 자신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계획은 사실상 평화롭게 협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것은 갈등을 의미한다.

*Omnipotent Government*, p. 243

사회주의 공동체는 지시들이 발해지고 준수되는 거대한 권위주의적 조합이다. 이것이 '계획 경제(planned economy)'와 '생산의 무정부 상태의 폐지(abolition of the anarchy of production)'라는 말들이 의미하는 바이다.

*Socialism*, p. 185

## 개입주의의 위험들에 관하여

그 지지자들이 말하듯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제3의** 체제—자본주의에서 먼만큼 사회주의에서도 멀지만 각각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피하는 체제—가 있다는 견해는 순전히 헛소리다.

*Economic Policy*, p. 51

중도 정책은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할부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Planning for Freedom*, pp. 32-3

만약 유권자들의 큰 부분이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Bureaucracy*, p. 81

공공 기업은 민간 기업과 자유 경쟁을 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오늘날 오로지 그것이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Nation, State, and Economy*, p. 186

그러한 것이 현대 독점의 진정한 사정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더러 믿게 하듯이 방해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결과도, 자본주의 진화의 고유한 추세의 결과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 경제 개혁을 목표로 삼는 정부 정책들의 결과다.

*Omnipotent Government*, p. 72

경제 과학은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상이 아주 공허하다는 것, 사회주의적 사회 조직이 아주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 개입주의 질서가 터무니없으며 그것이 겨냥하는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므로 시장 경제가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 협동 체제라는 것을 냉정하고 기각할 수 없는 논리로 증명한다.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p. 196

## 자유주의에 관하여

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동포들에 봉사한다. 이것은 18세기 자유주의 저자들이 전 주민의 모든 집단들과 모든 개인들의 올바르게 이해된 이익들(rightly understood interests)의 조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Economic Policy*, p. 23

국가들이 외국산 제품들에 상호 의존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Liberalism*, p. 107

이것, 즉 소유권의 보호, 자유 그리고 평화는 자유주의 확설이 국가에 할당하는 기능이다.

*Liberalism*, p. 37

외적이나 국내 폭력단에 의한 침략에 대비하여 한 국가의 안전과 문명을 방어하는 것은 어떤 정부든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상냥하고 착하다면, 만약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않는다면, 정부도, 육군과 해군도, 경찰도, 법원도, 감옥도 필요 없을 것이다.

*Bureaucracy*, p. 24

## 경제 진보의 동력에 관하여

이윤 동기는 공중을 주권적이게 하는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데 더 성공할수록, 그의 소득은 더 커진다. 좋은 구두를 가장 싼 비용에 생산하는 기업가가 부유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다. 만약 법이 그의 더 부유해질 권리를 제한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입을 것이다.

*Bureaucracy*, p. 88

자유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데, 자유주의가 소유자들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그러한 경제 조직으로부터 더 높은 생활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Socialism*, p. 57

오늘날 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흔히 다만 캐딜락과 쉐보레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뿐이다.

*Economic Policy*, p. 9

누진 과세 제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철학은 부유한 계급들의  
소득과 부를 자유롭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율  
의 옹호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조세로 떼어가는 소득의 더  
큰 부분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고 투자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이러한 재정 정책은 새로운 자본의 추가적인 축  
적을 막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 축소(capital  
decumulation)를 야기한다.

*Planning for Freedom*, p. 32

## 개인적 가치의 중요성에 관하여

가치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가치는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환경의 조건들에 반  
응하는 방식이다.

*Human Action*, p. 96

가치 평가는, 외부 세계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의 생리적

조건의 환경을 포함하여, 사람이 자기 환경의 다양한 상태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The Ultimate Foundations of Economic Science*, p. 37

경제학은 사물과 유형적 물질적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 그의 의미 그리고 행동에 관한 것이다. 재화, 상품과 부 그리고 모든 다른 행동 관념들은 자연의 요소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의미와 행동의 요소들이다. 그것들을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를 고찰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들을 행동하는 인간의 면에서 탐구해야 한다.

*Human Action*, p. 92

우리는 외부 세계의 일정한 조건들이 인간의 마음에 일정한 반응을 야기하는 이유와 방법을 모른다. 상이한 사람들이, 그리고 동일한 사람도 자기의 삶의 상이한 순간들에, 왜 동일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상이하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Theory and History*, p. 69

소위 ‘질적 경제학(qualitative economics)’ 대신 ‘수량 경제학(quantitative economics)’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경제학자들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일정한 관계란 없고, 어떤 측정도 가능하지 않다. . . . 상이한 개인들은 동일한 것을 상이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동일한 개인도 조건이 변하면 평가가 변한다.

*Human Action*, pp. 55-6

## 기업가 정신과 경쟁에 관하여

모든 행동은 투기이며, 말하자면 불확실한 미래 조건에 관한 일정 의견에 의해 안내된다. 심지어 단기 활동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어떤 예상치 못한 사실이 자기가 내일이나 다음 시간을 위해 마련했던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지 않을지 아무도 모른다.

*The Ultimate Foundations of Economic Science*, p. 51

수천의 사업가들은 소비자를 더 잘 만족시키거나, 생산하는 데 비용이 덜 들거나, 기존 제품들보다 더 좋고 비용이 덜 드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이타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Economic Policy*, p. 36

자본주의의 발전은 모든 사람이 소비자에게 더 좋게 그리고/혹은 더 낮은 비용으로 봉사할 권리를 가지는 데 존재한다. 그리고 이 방법, 이 원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를 바꾸었다.

*Economic Policy*, p. 5

시장의 작동에 관해서는 자동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상태를 결정하는 유일한 힘이란 다양한 개인들의 가치 판단들과 이러한 가치 판단들에 의해 지도되는 그들의 행동들이다. 시장에서 궁극적인 요소는 가능한 최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각자의 분투이다.

*Planning for Freedom*, pp. 72-3

시장은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과정**(process)이자, 사고뎀으로써,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개인들이 전 사회 작동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Economic Policy*, p. 17

경쟁이 격렬할수록, 경쟁은 경제 생산을 증진하는 자신의 사회적 기능에 더 잘 이바지한다.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p. 84

재산이 점점 더 크게 자라는 경향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재산은 자랄 수 없다. 누군가가 그 재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Socialism*, p. 380

인구에 비교해 자본 증가를 가속화하는 것 외에는 일반 생활수준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

*Planning for Freedom*, pp. 5-6

## 인플레이션, 호황 그리고 불황에 관하여

건전한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나 신용 수단이 아니

라 추가적인 자본재들이다. 신용 팽창은 은행권과 예금의 모래 위에 세워진다. 그것은 틀림없이 붕괴한다.

*Human Action*, p. 561

확실히, 정부는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삭감할 수 있고... 추가적인 지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에 의한 신용 팽창의 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인 호황과 번영의 외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호황은 이르거나 늦거나 간에 붕괴하여 불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Omnipotent Government*, p. 251

사람들이 '물가 수준(price level)'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의 양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만 탱크(액체용 대형 용기—옴긴이 주)의 액체처럼 평평하게 올라가는 액체의 수준에 관한 영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가격들에는 '수준'과 같은 것은 없다. 가격들은 동시에 같은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

*Economic Policy*, p. 59

화폐 안정성으로의 복귀는 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금융 완화(easy money)에 의해 초래된 실체가 없는 번영의 환각 아래에서 이루어진 과오 투자와 기타 실수들을 밝은 곳에 드러낼 뿐이다.

*Planning for Freedom*, p. 156

금 본위제는 하나의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화폐 공급량은, 금 본위제 아래서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들과 독립적이다.

*Economic Policy*, p. 65

## 선택된 미제스의 책들과 논문들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1953), H. E. Batson 옮김, London: Jonathan Cape. 독일어 원본은 *Theorie des Geldes und der Umlaufsmittel* (1912).

*Nation, State, and Economy* (1988), Leland B. Yeager 옮김,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독일어 원본은 *Nation, Staat, und Wirtschaft* (1919).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1935), S. Adler 옮김, F. A. Hayek,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에 재수록. 독일어 원본은 ‘Die Wirtschaftsrechnung im Sozialistischen Gemeinwesen’ (1920).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1936), J. Kahane 옮김, London: Jonathan Cape. 독일어 원본은 *Die Gemeinwirtschaft: Untersuchungen über den Sozialismus* (1922).

*Liberalism* 혹은 *The Free and Prosperous Commonwealth: An Exposition of the Ideas of Classical Liberalism* (1962), Ralph Raico 옮김,

Princeton, NJ: D. Van Nostrand. 독일어 원본은 *Liberalismus* (1927).

*Monetary Stabilization and Cyclical Policy* (1978), Bettina Bien Greaves 옮김, Dobbs Ferry, NY: Free Market Books. 독일어 원본은 *Geldwertstabilisierung und Konjunkturpolitik* (1928).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1977), Hans F. Sennholz 옮김, 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독일어 원본은 *Kritik des Interventionismus* (1929).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1960), George Reisman 옮김, Princeton, NJ: D. Van Nostrand. 독일어 원본은 *Grundprobleme der Nationalökonomie: Untersuchungen über Verfahren, Aufgaben, und Inhalt der Wirtschaftis und Gesellschaftslehre* (1933).

*Interventionism: An Economic Analysis* (1998), Bettina Bien Greaves 옮김, Irvington-on-Hudson,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독일어 원본 *Nationalökonomie: Theorie des Handelns und Wirtschaftens* (1940)로부터 발췌.

*Omnipotent Government: The Rise of the Total State and Total War* (194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Bureaucracy* (194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lanning for Freedom’ (1945), *Economic Planning*, New York: Dynamic

America. *Planning for Freedom, and Other Essays and Addresses* (1952), South Holland, IL: Libertarian Press에 재수록.

*Planned Chaos* (1947), Irvington-on-Hudson,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194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1956), Princeton, NJ: D. Van Nostrand.

*Theory and History: An Interpret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 (195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An Essay on Method* (1962), Princeton, NJ: D. Van Nostrand.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1969), New Rochelle, NY: Arlington House.

*Notes and Recollections* (1978), South Holland, IL: Libertarian Press.

*On the Manipulation of Money and Credit* (1978), Bettina Bien Greaves 옮김, Dobbs Ferry, NY: Free Market Books.

*Economic Policy: Thoughts for Today and Tomorrow* (1979), Chicago, IL: Regnery Gateway. (미제스가 1958년 남아메리카에서 한 강연들의 모음집)

## 옮긴이에 대해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환교수(풀브라이트 교환 학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 교환교수로 연구했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산시장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파 이론 연구이며, 『득표 동기론』, 『현대 정치 경제론』, 『동물 사회의 경제학』(공역), 『새 연방제론』, 『게임 이론』, 『사적 욕망과 공공수단』(공역), 『지대 추구』,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 『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 『득표 동기론 II』, 『관료제』, 『전제 정치』(공역), 『간결한 경제학 길잡이』, 『복지, 정의 그리고 자유』, 『국민 합의의 분석』, 『도시 정부의 이해』, 『경제 모형과 방법론』, 『공공선택론 입문』, 『대중을 위한 경제학』(공역), 『미국의 외교 문제』(공역)와 같은 역서들을 발간했다.

## 루트비히 폰 미세스 입문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13년 8월 29일

도서출판 리버티  
612-760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612-760,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13

Ludwig von Mises: A Primer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April 2010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0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3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Kyungshung University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03-0 (93300)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